

2024 신입생 예비대학 ‘입학 전 기초학습역량 향상’

우리 대학 김춘성 총장은 지난 11일 기초교육대학이 2024학년도 수시합격 신입생 500여 명을 대상으로 ‘신입생 예비대학’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는 신입생 예비대학은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지난 11일 오전 10시 해오름관 대강당에서 수시모집 합격 신입생과 학부모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했다.

이날 김춘성 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대학 역사 ▲30만 동

문 현황 ▲전국 대학 상위 10% 이내 연구역량 ▲미래 대학 비전 등을 소개했다. 이후에는 신입생들의 대학 적응력 향상을 위한 학교생활 안내와 조별 동영상 제작 비교과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신입생 예비대학’에서는 기초학력 강화를 위한 교과목(수학, 물리, 화학, 영어, 글쓰기 등)을 운영한다. 이는 학생들이 기초학문을 미리 수강함으로써 입학 후 전공과목 및 교양과목 수강 시 강의 이해도 및 학습 능력을 키우고 대학 생활 설계, 진로 탐색, 학습 동기 부

여, 리더십 향상 등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아울러 고등학교 문과 졸업 학생이 공대나 자연대 등 이공계열로 교차 지원한 경우 수학, 과학과 과목의 부족한 기초를 다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이번 예비대학에 참여한 학생 중 수학, 과학 기초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에게는 본교 입학 시 학점을 부여하고 문화마일리지 적립의 혜택이 주어진다.

김슬기 기자

dvjhgy@naver.com



▲2024 신입생 예비대학 교육 모습

김슬기 기자

‘대자연’ 동아리, 전국 대학생 자작 자동차 대회 휩쓸다

우리 대학 자동차 연구회 동아리 ‘대자연’이 최근 영암에서 열린 대회에서 1·2·3위를 모두 차지하며 쾌거를 이뤘다.

최근 영암 국제 자동차 경주장에서 열린 ‘전국 대학생 포뮬러 자작 자동차 대회’(2023 제2회 KFGP STUDENT)에서 우리 대학 대학생 자동차 연구회 ‘대자연’이 비포장도로 BAJA부문 1·2위, 포장도로 EV 3위를 차지했다.

2회를 맞이한 ‘전국 대학생 포뮬러 자작 자동차 대회’는 영암 서킷 F1경주장을 전국 대학생들에

게 알리고 영암 서킷 경주장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대회다. 대회에는 FORMULA, EV클래스, BAJA클래스 등 3개 종목에 1,000여명이 참가해 실력을 겨뤘다.

대학생 자동차 연구회의 앞글자를 따 이름 지은 ‘대자연’ 동아리는 37년 전부터 시작했다. 자동차의 설계부터 용접, 배선까지 직접 작업해 자동차를 만들고, 그 자동차로 대회에 출전하는 등의 여러 활동을 하고 있다.

강현웅 대자연 회장은 “바하 2대 전기차 2대 모두 완성돼 처음

으로 차량 4대가 나란히 서서 출발할 때 그 쾌감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며 “대회 준비하는데 아주 힘들었을 텐데 열심히 해준 모든 팀원 감사하고 수고 많았다”고 전했다.

이어 “기존 대회와 다르게 졸업한 선배들과 함께 팀을 꾸려 나갈 수 있어서 더욱 뜻깊은 대회였고, 경기장이 실제 레이싱 서킷이다 보니 팀원들 모두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덧붙였다.

정하늘 기자

jeongsy1109@naver.com

2024 정시모집 경쟁률 3.48 대 1 지난해 대비 소폭 상승



정하늘 기자

우리 대학은 2024학년도 정시모집 원서접수를 지난 6일 마감한 결과 총 975명 모집에 3,392명이 지원해 3.48 대1(정원 내 3.82 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정시모집 경쟁률 3.39 대1(정원내 3.59 대1)보다 소폭 오른 수치다. 모집군 및 전형별 경쟁률을 살펴보면 가군 수능(일반전형) 4.31 대1, 수능(지역인재전형) 3.47 대1, 수능(군사학과전형) 0.32 대1, 실기/실적(실기전형) 3.20 대1을 기록했으며, 나군 수능(일반전형) 3.80 대1, 실기/실적(실기전형) 3.83 대1, 학생부 교과(평생 학습자전형) 0.50 대1, 학생부교과(특성화고졸업재직자전형) 0.12 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가군, 나군 통틀어 수능(일반전형)에서는 일본어과가 10대1의 경쟁률을 기록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글로벌비즈니스커뮤니케이션학과 9.50 대1, 약학과 8.30 대

1,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7.75 대1, 작업치료학과 7.45 대1 순으로 경쟁률이 높았다.

가군 수능(지역인재전형)에서는 약학과가 5.86 대1로 가장 높았고 치의예과 3.24 대1, 의예과 3.03 대1, 간호학과 2.92 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실기/실적(실기전형)에서는 만화·애니메이션학과가 7.00 대1의 경쟁률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체육학과가 6.50 대1을 나타냈다.

한편 정시모집을 통해 총원되지 않은 인원은 추가모집을 통해 모집한다. 추가모집은 다음 달 22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전형 방법은 정시와 동일하며 모집인원 등 자세한 내용은 다음 달 22일부터 우리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양미영 기자

see0195@naver.com

장애학생지원센터 ‘블렌딩’ 도서 출간

우리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의 학생자치회 ‘블렌딩’이 『장애인은 처음이라』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다.

대학혁신사업지원단과 장애학생지원센터 발전기금회의 지원을 받아 발간한 이번 책은 장애학생과 비장애 학생의 장애에 대한 경험과 시선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으로서 살아가는 법,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낯설고 두려웠던 각자의 처음을 응원하며 추운 겨울을 녹일 따뜻한 이야기들을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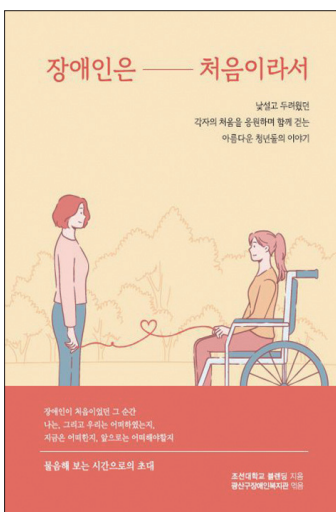
김정연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은 “블렌딩 학생들의 장애에 대한 진정성 있는 모든 이야기가 읽는 모든 이의 마음에 닿길 바라며, 앞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을 응원한다”고 전했다.

발간된 책은 여음 활동에 도움을 준 광산구장애인복지관과 평소 장애 인식 개선 활동 참여자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지난해 블렌딩은 화합과 성장을 도모하는 뮤직비디오 ‘This is me’를 제작해 눈길을 끈 바 있다.

정민 기자

wjdals0064@naver.com



▲책 『장애인은 처음이라』 표지

정민 기자

비교과 통합 관리 센터, ‘THE 조아 시스템’ 구축 완료보고회 개최

우리 대학 비교과 통합 관리 센터에서는 지난달 18일 ‘THE 조아 시스템’ 구축 완료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추진 경과 보고와 함께 THE 조아 시스템을 시연했으며, 미래지향적인 시스템에 대한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서 진행됐다.

THE 조아 시스템 구축은 대학 혁신지원사업 세부과제인 1Day 1Doing 활성화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됐고, 웹과 모바일 환경에서 학생역량 진단, 비교과 및 상담 지원의 효율화, 학생 지원 및 교수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능 등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하나의 플랫폼에서 학생, 교수, 직원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 홍보부터 결과보고까지 가능하게 됐으며,

외부인도 대학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The 조아 시스템에서는 ‘My 포트폴리오’ 탭을 통해 학생의 기본 정보, 진로 로드맵, 나의 역량 개발, 포트폴리오 제작, 우수 포트폴리오 작품을 확인할 수 있다.

‘진단 및 설문’ 탭에서는 7대 핵심 역량 진단, 학습 역량 진단, 워크넷 진단, 학교에서 개설한 설문 조사를 할 수 있다. ‘비교과’ 탭에서는 비교과 신청 및 신청 내역 확인을 할 수 있으며, 문화 마일리지의 적립과 차감에 대한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학생상담’ 탭에서는 지도교수 상담과 더불어 학습, 심리, 진로, 취업 상담 신청이 가능하며 나의 상담 내역 확인도 가능하다. 또한, ‘진로취업정보’ 탭에서는 취·창업정보 및 커뮤니티를 확인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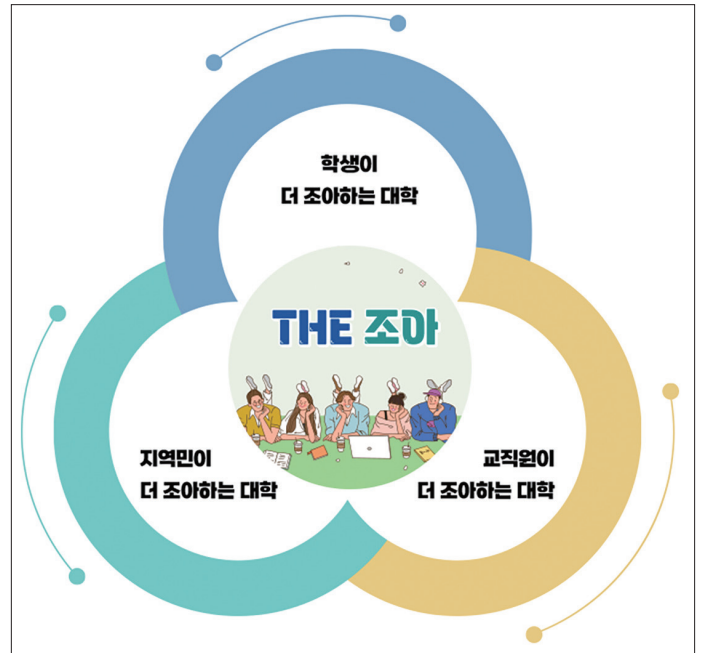
수 있으며, 진로 탐색을 통해 해당 직무의 졸업생 역량을 확인할 수 있다. ‘커뮤니티’ 탭에서는 공지사항과 더불어 공간과 장비 대여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보고회에는 전제열 부총장, 권구락 기획조정실장, 김재홍 취업학생처장, 이준식 기획조정 부실장, 강진희 취업지원부처장, 박행자 총무관리부처장, 장삼석 시설관리부처장 등이 참석했다.

끝으로 권구락 기획조정실장(TF위원장)은 “THE 조아 시스템의 성공적 구축으로 대학 구성원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지금부터 시스템이 안정화될 때까지 지속적인 협조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양미영 기자

see0195@naver.com



▲조선대학교 비교과프로그램 ‘The 조아’

진로·취업지원

광주시 ‘영산강 100리길, Y-프로젝트’ 추진

지난 10월, 민선 8기의 핵심 공약 사업으로 발표됐던 ‘Y-프로젝트’가 구체화됐다. 총사업비 3천 785억 원을 투입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노잼도시’의 오명을 벗고 ‘꿀잼도시’로 탈바꿈하고자 하는 시도다.

영산강과 황룡강의 합류 지점의 모양을 본따 이름한 이 사업은 착수보고회를 연 지 약 1년 만의 구체화로 맑은 물·익사이팅·에코·연결 등 4대 가치를 담아 각 가치에 따른 사업 계획을 선보였다.

사업 내용으로는 4급수의 수질을 가진 영산강을 2030년까지 2급수의 맑은 물을 흐르게 해 먹는 물로 전환하겠다는 것과 아시아 물 역사 테마체험관 건립, 황룡강 에코랜드 건설, 영산강 70리와 황룡강 30리를 더해 총 100리의 길에서 마라톤·자전거·걷기대회 개최 등이 있다.

다가오는 추진 사업으로는 올해 10월, 서창 역사 축제 기간에 맞춰 옛 서창포구에 노을과 역사, 바람을 감상하기 위한 조망대 설치 등을 예고한 바 있다.

강기정 시장은 “상상력을 통해 새로운 광주의 변화를 꿈꾸겠다”며 “광주에 더 생태, 활력, 매력이 넘치도록 시민과 함께 Y 프로젝



트를 성공시키겠다”고 말했다.

채은지 광주시의원(비례)은 광주시로서 올 한 해는 활력 넘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준비의 해였다고 전했다. “더딘 부분도 있고 논란도 있었지만 휘둘리지 않고 묵심 있게 추진했다는 것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며 “시민 입장에서 일 잘 진행되고 있어도 안 보이면 불안해할 수 있기에 조금 더 공개하고 소통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광주시는 이외에 ‘꿀잼’ 사업으로 어등산관광단지에서 ‘그랜드 스타필드’ 구상을 밝힌 신세계프라퍼티에 협약 이행보증서를 받은 바 있으며, 토지 용도 변경을 위한 1년 간의 협상으로 골머리를 앓았던 ‘더현대 광주는 토지 매매 계약이 성사될 시 2025년 상반기 착공할 것으로 보인다.

정민 기자

wjdals0064@naver.com

글로벌대학 30 선정에 사활을 걸다

지난해 교육부의 글로벌대학 30 사업 선정에서 탈락한 우리 대학은 올해 글로벌대학 30 사업 선정에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우리 대학은 최근 대학 내부 공모와 추천을 받아 교직원 총 52명으로 구성된 ‘범조선대글로벌추진단’이 출범했다. 더불어 글로벌대학 30 킥오프회의, 글로벌대학 30 회의 등을 진행했으며, 정부가 추진 중인 글로벌대학 30 사업에 선정되기 위한 여정에 본격 돌입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글로벌대학 30 사업에서는 광기술공학과 특성화로 광주 주요 산업인 광융합 산업과 연계를 강조하며 글로벌 대학 사업을 신청했으나, 예비 지정에서 탈락했다. 올해는 각 단과 대학별 통합은

물론 타 대학과의 통합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단을 꾸리고, 재정비 시간을 통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어진 글로벌대학 30 회의에서는 글로벌대학 30 사업 내용, 교육 혁신 전략, 특성화 분야 운영 전략, CSU 도시 캠퍼스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마지막으로 김춘성 총장은 “범조선대글로벌추진단 출범을 시작으로 올해 글로벌대학 30 선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올해 꼭 선정돼 지역과 대학이 함께 발전하는 계기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세진 기자

zlw0726@hanmail.net

조대신문

www.chosun.ac.kr/chnews

1954년 9월 15일 창간

민족대학 건설에 이바지 / 대학언론 창달에 기여 /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

발행인_총장 김춘성 / 편집인 겸 주간_김봉철

편집국장_정하늘 / 인쇄인_박만수

주 소_61453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09

편집실_062-230-6162 / FAX_062-234-3014 / 행정실_062-230-6166

2024학년도 제37대 총학생회 선거 결과

‘시선(C-SUN)’ 안형준(정)·한수현(부) 당선

이번 2024학년도 우리 대학 총학생회 선거 결과 제37대 시선(C-SUN) 안형준(정)·한수현(부) 학생회장으로 당선됐다. 안형준 회장(법사회대학·4)은 코로나19 시대 이후 기점으로 변화된 대학문화 생활의 조성하고 교본 부족의 등록금인상안 제시 등과 같은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에 놓여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 대학 학우들이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를 보장받고 학생자치기구 존재 이유를 되찾겠다는 소감과 함께 2만 학우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총학생회가 되도록 많은 바 책임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시선’ 총학생회는 학우들이 학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 제도에 관한 공약 중 취업이란 목표에 한 발짝 더 다가가기 위해 취업팀과 링크사업단 등 여러 부처와 협업체를 해 취업 프로그램 개설과 취업박람회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다수의 취업박람회의 경우 주로 수도권에서 주최되고 있다. 호남권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 대학 지리적 특성상 접근성이 떨어지는 불리한 상황과 학우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언급했다. 다양한 취업박람회 참여 지원을 위해 학우들의 기업 및 취업박람회 선호도 조사를 거치고, 취업전략팀과의 협의를 통해 지원방안(교통, 식사)을 마련할 예정이다. 학업에 도움이 되는 업체들을 중점으로 제휴업체(잡플래닛, 코멘토 등)를 선정해 다방면으로 지원할 방침을 보였다.

다음으로 ‘복지’ 공약에서 교내활동 인증서 발급에 대한 내용을 언급했다. 현재 우리 대학 학우들이 학교 자치 및 동아리 활동(학회 및 동아리)에 매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공식적인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는 전무한 상황이다. 이번 ‘시선’ 총학생회는 교내활동(단과대학/학과 학생회/학회/총동아리/단과대학/학과 동아리 등)을 의미 있는 비교과 활동으로 교내활동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조새’ 청원기구 소통의 장

‘소통’ 공약에서 분기별로 총학생회 공약 이행률 행사 진행 등을 평가받고 학우들

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는 소통 활성화 방안으로 ‘시선’ 총학생회는 학생청원기구 시조새를 내세웠다. 시조새란 (시)선 총학생회와 (조)선대학교 학우들이 함께 만드는 (새)로운 청원기구라는 뜻이다. ‘시조새’는 100% 익명 보장으로 학우들의 목소리를 전하며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청원기구로 활용된다. 시조새 게시판을 통해 중앙운영위원회에 안전을 상정해 재발방지책 마련과 해결 및 진행 과정을 공개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행사가 끝난 이후에도 만족도 조사를 통해 학우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원활한 커뮤니티 장을 형성할 것을 보였다. 이에 따른 총학생회비에 대해서도 TF팀 구성을 통해 총학생회비 사용 관련 규정 논의와 함께 공개하고 학우들에게 월별 사용 내용을 공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문화’ 공약에서 학업에 지친 학우들을 위해 여름 방학 기간에 모집을 통한 청춘문화 탐방 계획을 내세웠다. 청춘문화 탐방지원 제도를 통해 대학 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전하며 그동안 없었던 단과대학 연합 체육대회 개최하는 시도를 보였다.

현재 우리 대학에서 이뤄지는 여러 행사 시스템 중 학생회가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 같은 소속 단과대학 및 학부 내에서 이뤄지는 행사가 대다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단과대학 연합 체육대회를 통해 열린 우리 대학의 같은 구성원이라는 소속감을 확립하고 타 단과대학 학우들 간의 교류를 통해 화합의 장을 활성화할 것을 밝혔다.

지속 가능한 학교의 발전을 위해

안형준 회장은 먼저 현재 전국의 대학은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과 함께 앞으로 신입생 충원, 대학 재정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에 관해 언급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글로벌대학 30 선정,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 체계인 RISE 사업 등 대학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대학 본부 측과 협의하여 돌파구를 찾아낼 것이라는 계획을 드러냈다.



▲우리 대학 총학생회 안형준(좌) 회장과 한수현(우) 부회장

총학생회장으로서 꼭 이루고 싶은 목표

총학생회장의 임기 동안의 목표에 대한 물음에 최초 민립대학의 이름에 걸맞게 지역 시민들과 함께 성장하는 대학을 만들겠다는 다짐을 보였다. 또한, 현재 대학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글로벌대학30 사업도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대학’을 선정하고 있는 만큼 지역민들과 함께 성장하는 대학, 지역민들과 함께 만드는 축제를 목표 삼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연도 시선의 첫걸음

올해 시선 총학생회의 첫 공약에 대한 질문에 “이삿집센터&기숙사 입사 도우미 공약이 가장 먼저 시행될 것이다”고 답했다. 이 공약을 통해 총학생회 인원들이 직접 나서서 집을 옮기며 학우들의 학교생활에 있어 고충과 학생회에 바라는 모습들을 직접 들을 생각이라고 전했다. 더 나아가 이때 들은 학우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앞으로 1년간 학생 자치 기구의 청사진을 기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우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마지막으로 안형준 회장은 후회와 미련의 차이에 대해 언급했다. “후회란 최선을 다했지만, 그 결과가 좋지 않을 때 후회하는 것이고 미련이란 결과가 두려워 시도조차 하지 않았을 때 미련이 남는 것이다”며 후회와 달리 미련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20대라는 청춘이란 이 시기에 원하는 일이나 하고자 하는 일에 주저하지 말고 도전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과 함께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조선대학교 총학생회 당선 공고

2024학년도 조선대학교 총학생회

조선대학교 2만 학우들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시선(C-SUN)”

정 : 안 형 준 (법사회대학 4)

부 : 한 수 현 (공과대학 4)

- 투표 결과 -

총 원 : 17,350명

투 표 수 : 9,753명 (56.21%)

찬 성 : 7,715명 (79.10%)

반 대 : 1,507명 (15.45%)

무 호 : 392명 (4.02%)

오 차 : 147명 (1.51%)

개표 결과 안형준·한수현 선거운동본부가 조선대학교 총학생회 정·부 학생회장으로 당선되었음을 공고합니다.

조/선/대/학/교/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4학년도 총학생회 최종 당선 공고

2024학년도 총학생회 투표는 몇 차례의 연장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투표수는 9,753표이며, 찬성 7,715표, 반대 1,507표, 무효 392표, 오차 147표로 마무리됐다. ‘시선’ 총학생회는 79.1% 찬성표를 받아 안형준·한수현 선거운동본부가 정·부 학생회장으로 당선됐다. 총학생회 임기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2024년도의 새로운 총학생회인 ‘시선’의 활동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켜보기 바란다.

김슬기 기자

dvjhgy@naver.com

김세진 기자

zlw0726@hanmail.net



▲우리 대학 제37대 총학생회 시선(C-SUN)

2024 새해와 함께 달라지는 것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가 밝았다. 더 나은 한 해를 꿈꾸는 올해도 다양한 분야에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4년마다 돌아오는 윤년인 2024년의 새롭게 변화하는 스톡킹 범죄 법률, 최저시급 2.5% 인상, 청년 정책까지. 새해를 맞이해 2024년 달라지는 것에 대해 조대신문 기자들이 전달한다.

2024년은 366일

올해 2024년은 윤년이다. 4년마다 돌아오는 2월 29일 윤일이 있어 지난해보다 하루가 더 긴 해가 된다.

윤년은 지구의 공전과 자전 주기 차이로 만들어진 단어다. 지구의 공전 주기가 365.25일이기에 1년이 365일이 되면 오차(0.25)가 발생한다. 이 기간이 달력과 계절의 차이를 만들어 균형을 맞추기 위해 4년마다 2월에 하루를 추가해 2월 29일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윤년인 올해는 1년이 365일이 아닌 366일이 된다.

2월의 가장 큰 특징은 28일 혹은 29일까지밖에 없다는 것이다. 2월은 왜 다른 달보다 짧은 것일까?

시간은 고대 로마 시대로 거슬러, 당시 고대 로마의 달력은 1년이 열 달로 이뤄져 있었고 당시 한 해의 첫 달은 지금의 3월에 해당했다. 그러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지구의 공전주기인 365.25일에 맞도록 달력을 12개월 365일로 만들었다. 홀수 달을 31일, 짝수 달을 30일로 정하며 마지막 12월은 29일이 됐고 이 12월이 현재 2월이 된 것이다. 율리우스가 11월 1일에 새 달력을 공포하며 그날을 1월 1일로 지정해 두 달씩 밀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달력은 바로 다음 황제인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다시 변동이 생긴다. 본인이 태어난 달인 8월이 30일인 것을 원치 않아 2월에서 하루를 더 빼 8월에 추가하게 된다.

올해는 관공서의 휴일 기준으로 총 68일의 공휴일이 있고 전체 휴일은 주 5일제 기준 119일이며 지난해보다 2일이 추가됐다.

2 February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2024년 2월 달력

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치는 설 연휴(2월 9~11일)와 어린이날(5월 5일)은 대체공휴일이 따로 있어 휴일 숫자에 변동이 없다.

연말연시를 맞아 각종 검색사이트에는 2024년의 공휴일을 다룬 게시물이 넘쳐났다. 빨간날이 예년보다 늘었는지 비교하며 황금연휴가 언제인지 확인하려는 사람이 적지 않다. 여행을 노려볼만한 가장 긴 연휴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추석 연휴가 된다. 올해는 금요일부터 시작하는 3·1절 연휴, 대체공휴일이 들어간 어린이날 연휴, 주말을 포함해 5일을 쉬는 추석 연휴가 황금연휴다. 매년 달라지는 공휴일과 황금연휴를 확인하는 것도 소소한 행복이 아닐까. 2023보다 24시간 더 행복한 2024년이 되길 바란다.

정하늘 기자

jeongsy1109@naver.com

최저시급 9,860원, 2.5% 인상

이달 1일부터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인상된다. 지난해에 비해 2.5%, 즉 240원 인상된 금액으로 하루 8시간 기준 일급은 78,880원, 월급(1주 40시간 노동)으로는 2,060,740원이다.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 국적에 상관없이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기간 3개월 동안은 9,860원에서 10%를 감면한 금액인 8,874원을 지급받는다. 또 매달 지급받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은 최저임금에 모두 포함된다.

올해부터는 취업 인구를 독려하기 위해 제조업 등 빈 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을 지원하는 '일자리 채용 청년지원금'이 신설된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조선업, 해운업 등 빈일자리 업종 내 우선 지원대상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만 34살 이하 청년에게 3개월·6개월 근무 시 100만 원씩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



또 저소득층,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의 취업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을 현재 18~34살에서 다음 달 9일부터 15~34살로 확대한다. 군 복무 기간을 고려하면 최대 3년이 추가된다.

더불어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청년들의 취업 역량 제고를 위한 국가근로장학금 또한 최저임금과 동일하게 인상돼 교내 9,860원, 교외는 12,220원으로 인상됐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2만 명이 늘어난 14만 명의 근로 장학생을 모집할 예정이며, 국가근로 장학생 지원 자격으로 학자금 지원 구간 8구간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 모집할 예정이다.

양미영 기자

see0195@naver.com

새롭게 변화하는 스톡킹 범죄 법률

과거 우리 사회에서는 스톡킹 범죄 처벌에 관해 경범죄나 주거침입죄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죄로 처벌됐다. 그 후 스톡킹과 관련된 '신당역 사건', '세 모녀 사망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스톡킹 범죄에 대해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스톡킹 피해자가 7,000명을 넘어서면서, 여전히 스톡킹 범죄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스톡킹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스톡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 부착이 가능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앞으로는 법원 선고 없이 잠정조치만으로 스톡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으며, 검사가 스톡킹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 신청에 따라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개정안 시행 전에는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변보호조치 결정에 따



▲스토킹 범죄 개정안

라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보급해 왔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언급됐다. 또, 기존에는 유죄 판결 확정 이후에만 위치추적장치 부착이 가능했다. 하지만 개정안 시행 후 전자발찌를 찬 가해자의 위치정보를 24시간 수집하고 피해자 접근 여부를 지속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이는 스톡킹 범죄의 발생률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세진 기자
zlwm0726@hanmail.net

유용하게 훑아보는 2024년 청년 정책

2024년 비상하는 청룡의 해가 밝았다. 힘찬 도약과 향후 미래세대의 주역이 될 청년들을 위해 올해 달라지는 청년 정책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국토교통부에서는 한국형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인 K-패스 도입을 5월에 시행한다. 현행 알뜰교통카드를 새롭게 탈바꿈하며 크게 개선된 바 있다. 이동 거리에 비례해 지원되고 애플리케이션 사용이 수반된 알뜰교통카드와는 달리 K-패스는 이동 거리와 무관하게 최소 이용 횟수만 적용된다. 일반은 20%, 청년 30%, 저소득층은 무려 53%가 적립된다. 예를 들어 1,500원이 요금 기준이라 할 때 최소 300원에서 최대 800원까지 적립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고속 전동차, GTX-A가 3월에 개통된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조 6,000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된 GTX-A 노선이 수서-동탄 구간이 오는 3월에 개통 예정이다. 수서-동탄은 19분, 운정-서울역은 20분 소요되며, 따라서 연장된 시간 부담을 줄여 오고 가는 교통 체증을 절감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다음은 청년들의 월세 부담 경감을 위해 월 20만 원씩 1년간 지원해 주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이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월 20만 원씩 1년간 지원되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이 올해 2024년에도 연장 시행된다는 소식이 들렸다. 이를 위해 국회에서 690억 원의 예산이 증액됐다. 여기서 청년 월세 특별지원이란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만 19~34세)을 지원하는 제도다.



▲2024년 청년 정책

마지막으로, 금융위원회에서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이다. 본래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통장'이지만, 올해 명칭이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으로 변화했다. 이 청약통장은 혜택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보다 0.2%p 높아져 4.5%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둘째, 가입 조건 대폭 완화해 기존 연 소득 3,5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하의 청년이라면 통장 가입이 가능하다. 셋째, 1회 납입 한도는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 마지막은 가장 중요한 점이다. 청약 당첨 시 최저 연 2%의 저리로 분양가(최대 6억 원)의 80%, 최대 40년간 대출금을 빌릴 수 있다.

앞서 소개한 2024년 청년 정책 시행들이 우리 대학 학우들이 잘 활용하고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 또한, 무엇보다 모두가 고대한국대학교를 성취하도록 응원을 전한다.

박혁은 기자
back9370@naver.com

교수칼럼

새로운 미디어에는 '왜?'라는 질문을

새로운 기술은 우리를 현혹한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에게 '새로운 미디어'로 다가온 것들의 사례만 보아도 그렇다. 인터넷과 스마트폰과 인공지능과 메타버스를 거쳐 지난해에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갑작스레 우리의 관심 속으로 들어왔다. 매년 새로운 기술은 그 기능과 뜻을 분명히 알고 정의하기도 이미 거대 산업이자 주요 언론 담론이 되어 우리를 매혹하는 동시에 위협한다. 첨단 기술이 우리 삶을 더 좋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희망의 목소리도 커지지만, 새로운 흐름에 올라타지 못하면 자칫 시대에 뒤떨어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함께 가져다준다.

혹시 나는 그렇게 새로운 미디어 기술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면, 서랍 속이나 집안의 창고를 한 번 열어보자. 그 안에는 미디어의 역사가 담겨 있

기 일쑤다. 학생 때 쓰던 수첩 몇 권, 펜이나 책, 다양한 형태의 카메라와 녹음 장치들이 방치되어 있을 것이다. 조금 더 쉽게는 스마트폰 앱 구매 기록이나 컴퓨터 파일을 살펴볼 수도 있다. 내가 한때 열광했던 그러나 지금은 기억 속에서 거의 사라진 수많은 도구와 기록의 역사가 그 안에 담겨 있을 것이다.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기술은 그것의 성능이 다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기술에 밀려나서 짧은 시간 안에 존재감을 잃는다. 과연 새롭고 특수한 기술이 보편적이고 오래된 기술보다 더 낮고 필요한 것일까?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

2022년 10월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시민들은 크고 작은 삶의 힘겨움을 경험했다. 단순히 메시지 전달이나 택시 호출이 어렵다는 정도의 불편에 그



이희은 교수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친 것이 아니었다. 기본적인 경제 활동이 위기를 겪고 심지어 병원 응급실 연락망이 마비되기도 했다. 이 사례는 왜 우리가 미디어를 사회 인프라로 여겨야 하는지 분명히 보여주었다. 철도망과 수도망과 전기망이 우리에게 보편적인 생존의 권리를 보장해주듯이 이제 미디어 기술도 우리의 보편적인 생존과 관련한 것으로 인식해

야 한다. 미디어는 환경이고, 환경은 미디어다.

새로운 미디어 기술을 향한 관심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새로운 미디어 기술이 세상을 구원하거나 혁명적으로 바꿀 것이라 단언하는 일은 성급하다.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은 분명 새롭고 중요한 기술이지만, 여전히 지구에서 채굴한 에너지와 자본과 거대 산업과 사회 권력의 망을 통해 작동하는 복합체라는 점에서는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

2024학년부터 내가 속한 학과의 이름이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로 바뀐다. '신문방송학과'라는 이전의 명칭보다 더 길고 덜 직관적이다. 그러나 이 새로운 학과 이름은 우리 삶과 환경의 변화 과정을 담아낸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 신문이나 라디오와 TV 등 구체적

인 전달 매체들의 집합을 의미했던 '미디어'라는 말은 이제 우리의 환경을 더 넓게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다. 아울러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새로운 미디어 기술에 관한 지속적인 탐구와 투자는 중요하다. 그러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왜?'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는 일은 더욱 중요하다. 특히 대학에서는 더욱 그렇다. 질문을 던지고 그 근거를 찾고, 필요하다면 속도를 줄이거나 브레이크를 밟을 수도 있고, 과장된 광고나 성급한 선언에 의문을 던지는 일은 여전히 중요한 과학적인 탐구방법이다. '왜?'라는 질문은 과학 발전의 방해 요소가 아니라 발전을 이끄는 힘이며, 무엇보다도 변함없이 고유한 대학의 사명일 것이다.

서석대

배움의 연속

우리는 살아가면서 알지 못했던 미지의 영역에서 새로움과 마주하고 좌절하며 혹은 성장할 수 있는 변화를 겪을지도 모른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철학자인 '프리드리히 니체(Friedrich Nietzsche)'는 위험한 삶을 추구하며 위험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시작과 출발이 중요



김슬기 기자
dvjhgy@naver.com

하다고 말한다. 이 한마디는 현재 새로운 것을 공부하고 끊임없이 학문을 탐구하는 내게 큰 영감을 불러일으킨 목소리였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도달할 수 있는 지식의 높이에 대한 한계가 두려웠으며, 한계가 없는 무한한 지식을 가지고 또다시 도전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었다. 새로운 것을 학습하고 터득하는 힘은 생각보다 강렬하고 후회의 굴레에 벗어나 좀 더 넓은 식견을 얻어냈다. 선택에 따른 자신의 책임과 함께 우리는 행동하고 느끼고 생각하면서 다양한 경험과 마주하며 배움을 깨닫게 된다.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됐을 때의 기쁨과 성취감은 배움에 대한 두려움의 불안정한 상태를 위로해주는 것 같았다. 완벽과 완전함을 추구했던 내게 불안정한 상태에서 수많은 정보를 연속적으로 실어나르는 경험 속 배움을 얻는 것에 대한 흥미를 불어 넣어 줬다.

“왜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배우면

서 살아야 할까?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고 싶었다.” 이러한 생각을 시작으로 신기하면서도 납득될 만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다. 우리가 편안하게 쉬면서 하고 싶은 것만 하고 공부를 하지 않는 생활과 반대로 공부를 계속하면서 받는 스트레스와 실패에 대한 상실감을 느낀다고 가정

해 보자. 때론, 목표를 달성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이러한 반복을 계속해 나가는 생활을 비교하면 실제 후자의 생활이 더 행복함을 크게 느끼고 뇌에서도 좋은 도파민이 많이 생성된다는 것을 배웠다.

배움은 삶의 중요한 요소이자 현대 사회에서 요구되는 기술이기도 하다. 사회의 흐름과 기술의 발전을 위해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던지고 있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배우며 다양한 가능성을 탐험하고 높은 수준의 성과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에 따라 새로운 언어나 문화 또는 넓은 영역에서의 지식을 통해 여러 사람을 경험하면서 소통의 공간이 확장되며 다양한 시야가 생기게 되는 선순환이 이뤄질 것이다.

정적인 생각과 완벽하고 완전함을 이루기 위한 실천으로부터 조금 더 나아가 울퉁불퉁한 길에도 한번 과감하게 도전해보고 새로움의 연속인 배움에서 내가 진정 이루고 싶은 것을 찾아 나서보면 어떨까.

청년의 담(談)

관심의 역설

'관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는 드물 것이다. 누군가가 나를 관심 있게 지켜본다고 하면 더 ভাল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그 마음이 커지면 되려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반대로 누군가가 나에게 무관심하다면 처음에는 그러려니 하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 한편에 서운함이 자리 잡기 시작한다. 우리는 관심과 무관심의 사회에 살고 있다. 타인에게 지나치게 많은 관심으로 상처를 주기도, 또다시 지나치게 무관심해 상처를 주기도 한다. 무엇이 정답이라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마음을 가졌던 진실한 내 마음은 어땠는지 들여다봐야 한다.

순수한 의도의 관심이었는지, 아닌 척 나에게 관심이 쏠리길 바랐는지. 혹은 사에게 바빠 무관심할 수 밖에 없었는지, 알면서도 무관심한 척했는지.

무관심 속에 쓸쓸히 죽어간 이와 쏟아지는 관심에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등진 이가 공존하는 사회가 참 아이러니하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 사람들은 또다시 무관심했던 이들을 욕하고, 관심 두던 이들



정민 기자
wjds0064@naver.com

를 욕한다. 그러나 이 역시 무엇이 틀렸다고 확인할 수 없다.

관심과 무관심 둘 다 처음엔 고맙거나 별생각 들지 않지만 과열되기 시작하면 부담스럽고 서운하다. 주는 사람은 언제나 받는 이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 특히나 마음과 마음을 오가는 일에 일방이란 없기에 더욱 섬세해

야 한다. 작은 상처라도 계속해서 마찰이 일어나면 결국 흉이 진다. 관심과 무관심이 공존하는 것이 모순적으로 느껴지지만, 서로에게 조금 대역더라도 약간의 틈이 있다면 금방 회복할 수 있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을 필요도 너무 가까이 있을 필요도 없다. 우리는 그저 흥하지 않기 위해 적당한 틈을 유연하게 조절할 줄 알아야 할 뿐이다.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변질되기 마련이다. 마음 또한 그렇기에 처음과 같을 수 없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시대가 아닐까. 양극화의 과열이 뜨거운 우리 사회에서 또 한 번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지금이다.



제보 및 문의 : chnews21@daum.net

☎ 230-6162

건강을 위한 지혜, 식품영양학과



김도형 학우
(식품영양학과·2)

우리 대학 식품영양학과는 인간의 건강과 웰빙에 중점을 두며, 식품과 영양의 두 가지 핵심 영역에서 이론과 실무 기술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학과다. 기초적인 교양 과목을 통해 학생들이 학문의 기반을 다지고, 2학년부터는 전공 과목을 통해 식품학 및 영양학 분야의 전문 지식을 습득한다. 식품영양학과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 김도형 학우(식품영양학과·2)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식품영양학과’ 하면 먼저 생각

나는 진로인 ‘영양사’를 제외한, 다른 미래 진출 방향을 묻는 말에 그는 우선 진로가 영양사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학과에서 응용될 수 있는 분야가 매우 다양하기에 본인의 성격, 취향 등에 따라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다고 이야기했다. 교육 분야(대학교수, 및 연구소), 급식 영양사(산업체), 임상영양사(병원, 보건소), 상담 영양사(건강 기능성 식품회사), 영양교사(학교), 행정 분야(식품위생직 공무원, 식품회사), 언론매체 분야(푸드 스타일리스트, 방송/신문/잡지사 등 식품영양 관련분야 전문가), 요리 연구원, 대학원 진학(의학, 치의학 및 약학전문대학원), 위생사(식품회사나 식약처 품질관리 및 위생 관리) 등 다양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

식품영양학과는 진로에 대한 특강이나 지원, 다른 활동들이 많은 편이다. 식품 기사 자격증 특강 지원과 취업 지원 특강, 영양사와 위생사 특강, 조리사 특강 등과 관련해 여러 자격증의 특강을 따로 진행하고 있으며, HACCP 팀장 교육, 김치류 HACCP 교육과정, 식약처



▲식품영양학과 학우들의 단체 사진

현장 실습, 영양사 실습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진로를 위한 현장 실습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식품영양학과는 2015년부터 학과평가 자연과학계열 우수학과(2019년 제외)로 지정되고 있다. 그는 “여태껏 기억에 남았던 수업은 판정훈 교수님의 기능성 식품학 수업이었다”며 “이 수업에서는 PBL(프로젝트 기반학습) 방식을

통해 지속 가능한 식품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각자의 창의성을 발휘하고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프로젝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정말 흥미롭고 기억에 남았다”고 이야기했다.

이와 더불어 김도형 학우는 “학업과 학생회 활동을 병행하다 보니 일상이 조금 바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며 “하지만 혼자

가 아닌 식품영양학과 학생회 ‘다운’을 같이 이끌어 가는 학생회 부원들 덕분에 더욱 원활하고 힘차게 활동할 수 있고 또한, 학우분들이 우리 학생회가 하는 활동에 만족과 즐거움을 느낀다면 그만큼의 성취감과 뿌듯함을 느끼기에 힘들고 더욱 열심히 활동하게 되는 것 같다”며 학과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김도형 학우는 “아직 미흡하지만 앞으로 1년 동안의 학과 생활이 더 즐겁고 행복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저희 ‘다운’ 학생회가 더욱 힘을 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또한, 아직 만나지 못한 신입생들에게 입학의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환영과 격려 인사를 전했다. “궁금한 점이나 고민 사항들을 말씀해 주시면 언제든지 학과 회장으로서, 또 선배로서 최선을 다해 도움 드리겠다”며 희망찬 인사로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정하늘 기자

jeongsy1109@naver.com

미래 공학의 선두주자, 기계공학과



박영광 학우
(기계공학과·3)

우리 대학 기계공학과는 4차 산업혁명 도래에 큰 동력을 다하며 인간의 삶과 밀접해 편리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모든 공학의 근간이 되는 기계는 인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이끈다. 따라서 통섭과 융·복합을 통한 공학 산업은 밝은 활력과 기대를 모을 것이다. 이에 기계공학과에 관한 상세한 정보와 향후 우수한 공학 인재 배출을 위해 박영광 학우(기계공학과·3)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박영광 학우는 기계공학과는 다

양한 학문 영역을 포괄하는 학과로, 학생들은 기본적인 수학, 물리학, 화학뿐만 아니라 ▲열역학 ▲유체역학 ▲강성 및 재료 등의 기본 과목을 배우게 된다고 전했다.

기계공학과의 차별화된 점으로 졸업 후 현업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무적인 기술과 문제 해결 능력을 신장에 중점으로,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프로젝트와 실험, 산업체와의 협력 기회를 제공해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말했다.

박영광 학우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 중 하나로 지난해 지능형 로봇혁신융합대학사업단에서 주관한 제4회 AI ROBOTICS 융합 아이디어 경진대회에 참가한 경험을 전했다. 시험 기간을 포함하는 2달 안에 지능형 로봇을 만들어야 했기에 팀원들과의 회의, 로봇개발 그리고 경쟁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성취감을 느꼈으며, 이 과정에서 학교에서 하는 공부뿐만 아니라 부가적인 공부를 통해 실력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았으며 소회를 밝혔다.



▲3D 프린팅을 활용한 하드웨어 제작 사진

그는 학과의 장점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적용할 수 있는 범용성 ▲광범위한 기술적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선정했다.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고 협업과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환경

에서 자연스럽게 역량을 키울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배움을 갈구하는 자세가 필요한 역량이라 전했다.

이어 그는 기계공학과에 진학하려면 수학과 물리학의 기초가 필

요하며 프로그래밍 언어에 익숙해지고 실험 및 프로젝트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계적 사물에 대해 항상 물음을 던지고 파헤치는 자세 함양을 이야기했다.

마지막으로 박영광 학우는 “처음 기계공학과에 들어온 대부분에 학생들은 로봇을 제작하거나 디자인 및 제어하는 환상을 갖고 오지만, 4대 역학, 공업 수학 등의 과목을 공부하면 그 환상이 깨지고 포기한다”고 말했다. 이어 “건물의 기초공사가 되지 않으면 무너지듯이 과목들이 나중에 로봇을 디자인하는데 근간이 될 것이므로 포기하지 않고 정진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기계공학을 끊임없이 발전하는 분야로 미래에는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다양한 가능성을 제공하니 자신의 꿈과 목표를 추구하고 최선을 다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의 말로 인터뷰를 끝마쳤다.

박혁은 기자

back9370@naver.com

사설

디지털 시대의 어두운 그림자, 가짜뉴스

21세기의 디지털 혁명은 소통과 정보의 자유로움을 가져왔지만, 가짜뉴스는 디지털 시대의 어두운 그림자로 우리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뉴스가 세상의 현상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중요한 도구라면, 가짜뉴스는 사실과 현실과 맞지 않는 정보를 근거 없이 전파하는 현상을 지칭한다. 이는 일상적인 뉴스에서의 일부 오류나 소소한 오해를 넘어서 의도적인 거짓 정보의 전파를 의미한다. 가짜뉴스는 대중의 감성을 자극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빠르게 확산되고 그 영향력은 더욱 증폭된다.

특히 디지털 시대의 도래로 가짜뉴스는 더욱 치명적으로 우리의 의식에 스며들었다. 소셜 미디어와 인터넷을 통해 무분별하게 번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차

별화된 진실을 찾는 것은 어려워졌다. 가짜뉴스는 사회적 분열을 초래하며, 특히 정치적인 분위기에서 큰 문제로 작용한다. 가짜뉴스는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인 왜곡과 고의적인 허위를 통해 혼란을 일으키며, 미디어 생태계와 공론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치적 목적을 가진 가짜뉴스는 특정 집단을 선동하고 혼란을 유발해 정상적인 민주적 프로세스에 장애를 끼친다. 이로써 인간들은 진실이 아닌 편향된 정보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사회적인 결집력이 흐트러지게 된다.

가짜뉴스는 다양한 원인에 기인한다. 이는 저널리즘의 퇴보, 소셜 미디어의 알고리즘, 그리고 사용자들의 정보 소비 습관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

과이다. 따라서 가짜뉴스 대응에는 다중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뉴스 제공자들은 편집실의 품질을 높이고, 사실 확인에 더욱 철저한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 이는 독자들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중요하다. 둘째, 소셜 미디어 플랫폼들은 알고리즘을 보완하고, 의도적인 가짜뉴스의 전파를 막기 위한 기술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소셜 미디어와 검색 엔진 플랫폼은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을 통해 가짜뉴스를 걸러내는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

하지만 가짜뉴스에 대항하는 것은 단순히 제공자들의 몫만이 아니다. 가짜뉴스에 맞서기 위해서는 정보 소비자들의 노력도 필요하다. 가짜뉴스 대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뉴스 소비

습관과 비평적 사고력의 향상이다. 우선적으로 정보 소비자들에게 미디어 소양 교육이 필수적이다. 미디어 소비자들은 비판적 사고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소스의 정보를 검토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뉴스를 소비할 때, 다양한 소스를 참고하고, 사실 확인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사회 구성원들은 비판적 사고력을 길러 소문이나 선전이 아닌 사실을 판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학교에서는 뉴스 소비 교육이 강화되어야 하며, 개인들은 비판적인 시각을 키우고 왜곡된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능력을 기를 필요가 있다.

데스크에서

학보사의 존재 이유

새로운 미디어가 넘쳐난다. 간편하고 자극적이다. 활자로 된 글을 읽는 것보다 영상으로 잠깐 소비하는 문화가 증가하고 있다.

학보사는 사전적으로 學(배움)과 報(알릴 보)를 합쳐 교내 소식을 알리는 기관을 의미한다. 실제 7080세대에게 있어 학보사의 위상은 매우 드높았으며 그만큼 중요시됐다. 이는 학생과 사회, 학생과 학교를 잇는 몇 없는 소통창구이자 학생들의 결속력과 협동을 이끄는 중요한 요소였다.

고전적인 신문이라는 미디어 매체는 어떻게 보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 한 단계 퇴보하는 면도 있다. 누군가는 학보사를 그저 견제기구로만 여기거나, 무관심하게 여길 수도 있는 부분이다. 신문을 보는 사람들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그 현실을 인지하고 있기에 학보사가 발행하는 신문을 읽고, 언제나 잘 읽고 있다는 학우들의 메시지나 호마다 발행되는 퀴즈의 정답을 보내오는 학우들, 연말에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받았을 때



정하늘 편집국장
jeongsky1109@naver.com

큰 힘이 되고 있다.

학보사의 역할은 무엇일까? 학보사의 존재 이유를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내린 결론은 분명 누군가는 알려야 하고 기록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문이라는 매체의 수요 자체는 줄어들고 있지만, 학교의 소식을 전하고 기록하는 학보사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고 유일무이하다. 학보사는 언론의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이 관심 갖기 어

려운 사안이라든가 지속해서 누군가는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야 한다. 글을 통해 학내 문제를 심층적으로 풀어내는 것은 학교의 정론지 역할을 수행하는 가장 근본적인 존재 의의다. 예나 지금이나 학보사가 지향해야 하는 방향은 진실 추구하고 학생들의 알 권리 보장이다. 아직 부족하지만, 본질에 집중하고자 더 노력하겠다는 말을 전한다.

나는 꾸준히 교내 소식을 전하고 싶은 사람은 계속 존재할 것이라 믿기에, 먼 훗날에도 학보사가 사라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신문을 발간하는 힘든 과정에도 불구하고 신문이 발간됐을 때의 성취감은 학보사의 역경에 대처할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학보사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앞으로 세상의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참여와 변화도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도 조대신문이 학보사의 존재 이유를 멋지게 증명하며 더 나아가길 바란다.

날/말/퍼/즐

많	프	사	령	모
복	년	초	진	해
표	세	암	요	받
호	회	고	트	으
새	갑	프	름	이

- '푸른 용의 해' 육십간지의 41번째로 푸른색의 '갑'과 용을 의미하는 '진'이 만나 '청룡(靑龍)'을 의미. ○○○
- 정가에 몇 배나 되는 웃돈을 얹고 팔아서 이득을 챙길 목적으로 거래되는 불법적인 탐승권, 입장권 등의 표. ○○
- 기계와 소통하는 인간. 인공지능의 기술은 2년마다 100배, 10년 후에는 100만 배 발전할 것이며, 앞으로 3억 개의 일자리가 기계로 대체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 ○○○○
- 가 가속화되면서 무임승차 연령 인상 논의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 보기에 있는 단어들을 하나씩 지운 뒤 마지막에 남은 단어들을 조합해 답을 찾은 뒤 학과, 학번, 학년, 이름, 핸드폰번호와 함께 2월 29일까지 chnews21@daum.net으로 보내주세요. 당첨자발표는 다음 호 신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첨자는 개별통보를 통해 스타벅스 교환권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월가월부 |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이대로 괜찮은가?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이 제공된다. 하지만 최근 지하철 적자 증가 원인 중 하나로 무임승차가 제기되며 많은 말이 오가고 있는 가운데, 조대신문 기자들이 이야기 나눠보았다.

정민 기자 wjdals0064@naver.com

최악의 상황을 위한 대책 마련, 선택 아닌 필수

최근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를 두고 많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고령화 인구가 많아지는 요즘, 연령 제한을 높여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인 무임승차 복지가 높은 만족도와 사회용량을 자랑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우리는 현실을 바라봐야 한다. 지하철 운영 적자는 나날이 늘어가고 있으며 그중 가장 큰 원인은 노인의 무임승차다.

만약 적자가 지속되고 자금을 메꾸기 어려워지면 지하철 민영화도 진행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노인 세대뿐만 아니라 지하철 이용자 모두가 부담되는 비용을 감당해

야 한다.

많은 것을 고려한 후 시행된 복지인 것을 알기에 무조건적인 제공 중단을 지지하지 않는다. 하지만 적자를 감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현재 무임승차 연령 안에서도 차등 요금을 두는 식의 적자를 메꾸 나갈 점진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국가에서 제공한 복지를 많은 이가 만족하며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사회 현상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가 있다면 개선이 불가피할 것이다.

양미영 기자 see0195@naver.com

고령화에 따른 노인 무임승차의 개선책

노인 무임승차 제도가 처음 등장했을 때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4.1%였다. 하지만 고령화가 빠르게 지속되며 노인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지난해에만 17.5%로 늘어났다. 2035년에는 3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하철 구조가 운영비에 비해 요금이 낮기 때문에 서울 지하철은 현재 지난해 적자만 1조 원이 넘는 상태다. 하지만 단순히 돈 문제뿐만 아니라 볼 수 없는 것은 노인 무임승차는

효과적인 복지 정책으로 노인의 바깥 활동을 고양하는 데 크게 기여해 자살이나 우울증을 줄여 건강 보험에서 나가는 의료비 또한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단순히 노인 무임승차를 없애는 것이 아닌 무임승차 시간대를 정하거나 소득 수준에 따라 무임승차 여부를 정해주는 다른 차선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박희은 기자 back9370@naver.com

노인을 위한 승차는 없다?

우리나라 통계청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년층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 추이는 2022년 기준으로 38.1%를 기록했다. 그들의 경제 형편을 고려하면 빈곤의 처지에 놓여있는 실정일 것이다. 인구 대부분이 핵가족이나 1인 세대인 점을 비롯해 독거노인 수도 급증하고 있다. 독거노인은 자립적으로 생활하지만, 사회적 고립감이나 가족의 부재 등의 사회적 원인을 크게 손꼽을 수 있다.

하루하루 의식주와 생계유지에 전전긍긍하며 허덕이는 가운데 문화생활을 향유하는 여유조차 마련돼 있을까? 마땅히 쉴 곳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그들의 여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도 마땅치 않다.

제일 큰 문제는 교통의 편의성이다. 경제

적 손실로 멀리 외출하고 싶다가도 가파른 물가와 경제구조로 교통비 부담되는 것은 매한가지다. 모든 노인의 만족을 충족할 수 없겠지만, 경제적 형편과 교통비 경감을 고려해서라도 하루빨리 노인의 경제적 손실과 교통 불편을 호소가 발생하는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노인 무임승차 문제는 심심찮게 거론된다. 하지만, 우리는 노인 세대의 의견을 헤아리고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우리 현세대가 향후 노인 세대가 됐을 때 어떻게 될지 가늠해 본다면 어떨까? 미미하지만, 조금씩 개선해 나가며 절충안을 찾는다면 노인들을 위한 교통 이용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세진의 사회 통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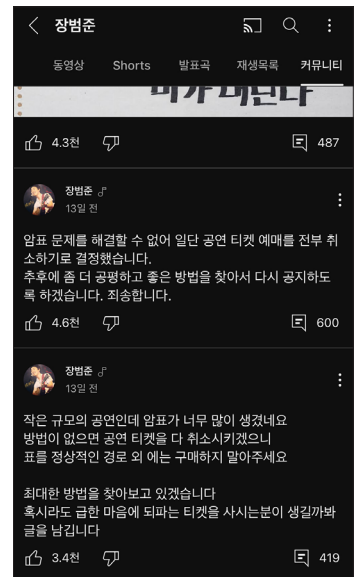
암표와의 전쟁

암표란, 정가에 몇 배나 되는 웃돈을 얹고 팔아서 이득을 챙길 목적으로 거래되는 불법적인 탑승권, 입장권 등의 표를 뜻한다.

이러한 암표는 SNS에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해당 공연, 경기 등에 관심 없는 암표상들까지 등장하게 됐다.

실제로 가수 장범준은 약 50명의 인원이 수용할 수 있는 소규모 콘서트를 진행하려 했지만, 암표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결국 공연을 취소했다. 또한, 가수 성시경·아이유·임영웅 또한 부정 거래 및 불법 판매로 의심되는 예매 건을 바로 취소시키며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위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암표를 처벌하기엔 쉽지 않다. 따라서 암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돈을 벌 목적으로 티켓을 구매하는 암



▲암표로 인한 콘서트 취소

표상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경계가 시급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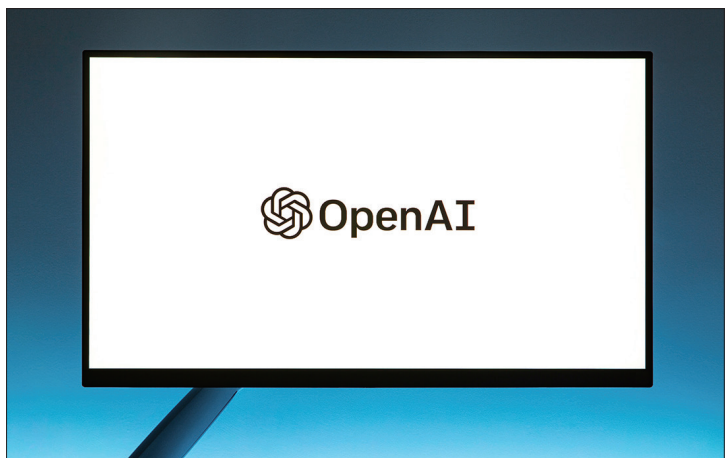
김세진 기자

zlw0726@hanmail.net



박희은의 트렌드 이모저모

AI 시대의 대가, 호모 프롬프트



▲Open AI ChatGPT

해마다 가파른 과학기술 발전으로 빛발치는 가운데 우리는 AI와 함께하는 일상에 살아가고 있다.

빠르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찾는 현대인들에게 인공지능이 없는 삶이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AI를 활용한 기술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는 점은 과언이 아니다.

오픈AI(OpenAI)에서 개발한 GPT(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Google의 BARD 등을 비롯해 시대에 발맞춰 대화형 인공지능을 선보였다.

인간은 인공지능과 '대화'라는 상호작용을 통해 기발하고 창의적인 질문으로 그에 관한 답을 찾고자 한다.

따라서 자신만이 보유한 인간

고유의 창의성을 더욱 고양하는 방향으로 각종 AI와 '티키타카'를 통해 인공지능 서비스를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호모 프롬프트'라고 한다.

우리는 AI에 업무를 위탁하고 궁금증을 자아내는 등 갖은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현명하고 똑똑하게 AI 기술을 활용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연습을 통해 기본적인 지식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질문에 따라 성과가 달라지므로 사리 분별로 인공지능의 빈틈을 메꿔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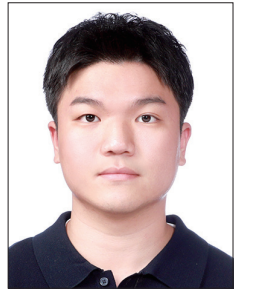
박희은 기자

back9370@naver.com



조대문화상 논설·평론 부문 '당선작'

학생회비,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안용현
(정치외교·3)

개강을 두 달 앞둔 지금, 각 학과의 학생회 임원들은 고민이 많다.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 하나는 이것이다. '어떻게 하면 신입생들에게서 학생회비를 많이 거둘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이유가 그저 신입생에게서 거둔 학생회비로 한 해 학생회 살림을 꾸려야 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고민의 근본적 이유는 사실 다른 데 있다.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

학생회는 개강 전부터 돈 걱정

학기가 끝나고 방학이 시작된 12월 말, 학생들이 떠나고 없는 학교는 조용하다. 대부분의 학생은 학기 중에 하지 못한 일을 하며 자유롭게 시간을 보낸다.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밀린 공부를 하거나,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그저 침대에 누워 빈둥거린다. 선택은 각자의 몫이다. 그러나 일부 학생만은 그리 자유롭지 않다. 방학 때 새 학기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2학기가 끝나면 이제부터 각급 학생회장들은 학생회 임원진을 구성해야 한다. 선거 과정에서 자신을 도와준 학생에게 부장이나 국장 자리를 제안하고, 다른 학생들 가운데 일 잘할 것 같은 학생을 설득해 학생회 임원진을 구성한다. 임원진 구성이 끝나고 새 학기 개강이 다가오면 학생회는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개강총회, 학과 단합대회, 체육대회, 시험 기간 간식 제공 등의 행사를 정신없이 준비하고 진행한다. 그러나 그 전에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바로 학생회비를 걷는 일이다.

학생회비의 이상한 구조

학생들이 내는 학생회비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총학생회를 위한 학생회비이고, 다른 하나는 학과 학생회를 위한 학생회비이다. 단과대학 학생회를 위한 학생회비는 없다. 이상하지 않은가? 학생회에는 학과 학생회, 단과대학 학생회, 총학생회가 있는데, 왜 단과대학 학생회비만 없을까? 단과대학 학생회는 도대체 어떻게 예산을 마련하는 것일까?

먼저 학생들이 어떻게 학생회비를 납부하는지 살펴보자. 학생들은 총학생회비를 매 학기 등록금을 납부할 때 함께 납부한다. 동의할 표시하면 등록금과 함께 자동으로 납부되는 방식이다. 그와 다르게 과학생회비는 입학할 때 각 학과의 학생회에 한 번, 4년

치를 한꺼번에 납부한다. 총학생회비와 과학생회비의 납부 방식이 이처럼 다른 것은 서로 다른 운영 방식과 관련이 있다.

총학생회의 전체 예산은 학생들이 납부하는 총학생회비, 대학 본부가 지원하는 학생지원경비, 그리고 직전 학생회로부터 넘겨받은 이월금 등으로 구성된다. 총학생회의 입장에서 볼 때, 학생들이 납부하는 돈은 전체 예산에서 얼마 차지하지 않는다. 1년에 모이는 돈이 1천만 원 안팎인데, 주로 비품 구매, 간식 구매 등에 사용된다. 이 돈은 총학생회가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총학생회 예산의 핵심을 차지하는 이른바 '교비'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 학생지원경비는 학교 예산의 일부여서 사용시에 대학 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학과 학생회의 예산은 학생들이 납부하는 회비와 이월금, 학과 행사를 위한 학과의 지원금 등으로 이루어진다. 총학생회와 다르게 학과 학생회 예산에서는 학생들이 납부하는 회비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학생들은 입학하고 나서 과학생회비를 납부하는데, 이때 4년 치를 한 번에 납부한다. 학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개 25~30만 원을 납부한다. 입학 정원이 50명인 학과를 기준으로 한 사람이 30만 원의 회비를 납부한다고 가정하면, 그 학과 학생회의 회비 수입은 최대 1,500만 원이 된다. 그러나 현실은 3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왜 그럴까?

먼저, 과학생회비를 신입생이 모두 납부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학과 행사에 참여하고 싶은 학생들만 자발적으로 회비를 납부하는데, 신입생이 50명이라면 그 가운데 많아야 20명 정도가 납부한다. 그렇다면 전체 회비 수입이 300만 원이 아니라 600만 원이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은 이유는 그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단과대학 학생회에 학과 학생회가 상납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 해 동안 학과 학생회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이 300만 원 정도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다.

단과대학 학생회의 예산은 학과 학생회가 상납한 돈(분담금)과 교비, 이월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여기에서 이월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고, 대부분이 상납금과 교비이다. 상납금이 약 40%, 교비가 약 60%를 차지한다. 교비의 출처는 총학생회의 경우와 같다. 그러므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상납금이다. 모든 학과 학생회가 상납을 해야 하며, 각 학과의 학생회는 회비 수입의 일정 비율이 아니라, 신입생 1인당 약 5만 5천 원의 돈

을 단과대학 학생회에 상납해야 한다. 개강 전까지 학과 학생회가 회비를 어떻게 거둘지 고민하는 이유이다.

작은 학생회의 이중고

상납구조 때문에 각 학과의 학생회는 회비를 최대한 많이 거두려고 노력한다. 각 학과의 학생회가 단과대학 학생회에 상납해야 할 금액은 신입생 정원을 기준으로 미리 정해져 있지만, 얼마나 많은 신입생이 과학생회비를 납부할지는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과 학생회가 자체 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면 학기 초에 최대한 많은 신입생에게서 회비를 거둬야 한다.

어떤 학과는 신입생들이 학생회비를 더 많이 납부하도록 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다. 학생회비를 납부해야만 학과의 학술연구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학생회는 그 대가로 학회에 매달 지원금을 지급한다. 학회가 학교 적응에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신입생들이 학회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것을 학생회가 이용하는 것이다.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제도가 어떤 학과에서는 전통처럼 지켜지고 있고 신입생들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서 그에 대한 불만도 딱히 제기되지 않는다.

모든 학과 학생회가 한 해 활동을 위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지만, 규모가 작은 학과의 학생회는 특히 더 어려움을 겪는다. 그 이유는 신입생 수가 적어서 회비 수입은 적지만 학생회 규모에 상관 없이 어떤 행사를 진행할 때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지출은 비슷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단합대회를 위해 버스를 대절하거나 학술제를 위해 자료집을 인쇄할 때 학생 수가 많을수록 1인당 비용이 적게 드는 반면, 학생 수가 적어도 최소한의 비용은 들기 때문에, 학생 수가 적을수록 재정적 어려움이 더 큰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려움을 더하는 것이 바로 상납금이다.

1학기 초에 각 학과의 학생회가 단과대학 학생회에 상납하는 것이 전부라면 다행일 것이다. 가을에 개최되는 단과대학 축제를 위해 단과대학 학생회는 추가로 상납을 받는다. 학과 학생회의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 상납을 할 수 없는 경우, 어쩔 수 없이 학과 학생회 임원들이 일단 사비로 먼저 상납한다. 축제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지만, 만약 적자가 발생하면 돌

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아직 없지만, 학과 학생회 임원들이 사비로 단과대학 학생회에 상납한 경우는 드물지 않게 있었다. 특히 이런 일은 규모가 작은 학생회에서 자주 발생하는데, 학생회가 사용할 수 있는 예산 자체가 적기 때문이다.

학과 학생회의 이런 예산 구조 탓에 학생회가 연말에 개최하는 행사에서도 규모가 큰 학과와 작은 학과 간에 차이가 나타난다. 예컨대, 규모가 큰 학생회는 1년을 마무리하는 행사를 진행할 때 학생들을 위한 경품으로 60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를 준비할 수 있는 반면, 규모가 작은 학과는 기껏해야 6만 원 상당의 필름 카메라밖에 준비할 수 없다.

많이 걷고 싶어도 잘 걷히지 않는 학생회비

그렇다면 작은 학과가 학생회비를 잘 걷으면 되지 않을까? 그럴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것 역시 쉬운 일은 아니다. 학생회비 납부는 의무가 아니라 개인의 선택 사항이고, 학생회가 회비를 납부하도록 권유를 무한정 반복할 수도 없는 일이다. 회비 납부를 자꾸 독촉하다가 학생회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회비가 잘 걷히지 않는 이유는 학생들이 학생회비 사용을 불신하기 때문이다. 과거의 학생회장들이 회비를 회령·유용했다는 의혹과 소문이 학생들 사이에 퍼지면서 회비를 관리하는 학생회에 대한 불신이 만연하게 되었다. 또한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대부분의 수업이 비대면으로 진행되면서 등교하는 횟수가 줄었고 정부의 집합 금지 명령으로 인해 대부분의 학생회 행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사이에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집단 활동보다 개별 활동에 익숙해졌다. 이제 학과 행사에 참여하는 학생은 전체 학생의 절반도 되지 않고, 그래서 학생회비 수입도 극적으로 줄었다.

학생회비가 잘 걷히지 않는 데에는 사회적 분위기도 한몫한다. 대학 졸업장 하나만으로 취업이 보장되지 않고 자격증이 있어도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학생들은 학생회 활동이나 학생회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할 시간에 차라리 자기 계발에 더욱 힘쓰려고 한다. 그러니 학생들의 자발적인 회비 납부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회비 납부의 합리성이 줄어드는 것도 회비를 걷기가 어려운 한 가지 이유이다. 저학년일 때는 대학 생활에 대

한 호기심도 있고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있어서 학과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므로 자신이 낸 회비만큼 또는 그 이상의 효용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고학년이 되면 이제 그런 호기심도 없고 친구도 이미 있어서 학과 행사에 참여할 유인이 줄어들게 되고, 그와 함께 회비 납부의 합리성도 줄어들게 된다. 입학할 때 4년 치 학생회비를 한 번에 받는 관행은 그래서 생겨났다.

그러나 이 방식은 신입생에게 큰 부담이 된다. 25~30만 원의 거금을 한 번에 내는 것은 누구에게나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이 부담도 학생회비가 잘 건너지 않는 이유 중 하나이다. 그렇다면 액수를 좀 낮추면 더 많이 납부하지 않을까? 그러나 학생회 입장에서는 회비를 인하하더라도 더 많은 학생이 회비를 납부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선불리 낮출 수 없다. 또한, 한 번 인하했다가 다시 인상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쉽게 낮출 수 없다.

현재의 학생회비 징수 방식이 단체 생활을 중시했던 과거의 대학 문화 속에서 잘 작동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도 그 방식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방식을 바꾸고 싶어도 매년 단과대학 학생회에 상납해야 할 금액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위협을 무릅쓰고 새로운 실험을 할 수도 없는 현실이다.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남의 돈으로 생색내는 단과대학 학생회?

학과 학생회가 어렵게 회비를 걷어 단과대학 학생회에 상납하면 단과대학 학생회는 그 돈으로 사업을 한다. 학과 학생회는 상납하고 남은 돈으로 사업을 한다. 단과대학 학생회의 사업과 학과 학생회의 사업은 성격이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르다. 학과 학생회가 회비를 납부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금은 차별적인 복지를 제공한다면, 단과대학 학생회는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일반적인 복지를 제공한다. 예컨대, 학과 학생회는 사물함을 배분하거나 시험 기간에 간식을 나누어주거나 단합대회 참가비를 받거나 할 때 회비를 납부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을 차별 대우한다. 그리고 이런 차별은 학생들에게 대체로 정당하게 여겨진다.

단과대학 학생회는 오히려 학생들을 차별 없이 대우한다. 축제, 체육대회, 간식 제공 행사 등 단과대학 학생회가 주최하는 행사에는 과학생회비를 납부한 학생이건 납부하지 않은 학생이건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과대학 학생회의 예산 중 일부가 교비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단과대학 학생회는 간식 제공 행사와 같이 교비를 사용하지 않고 각 학과의 학생회가 상납한 분담금을 사용하는 행사에도 과학생회비 납부 여부를 따지지 않고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회비를 납부한 학생들에게는

이런 무차별적 대우가 오히려 부당하게 여겨진다.

학생회비, 누가 걷어서 어떻게 써야 할까?

문제는 납부구조와 상납구조의 이상한 결합에 있다. 학과 학생회가 단과대학 학생회에 상납할 필요가 없다면 회비 징수에 대한 걱정은 많이 줄어들 것이다. 반대로, 학생회비가 자동으로 납부된다면 상납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문제는 회비가 잘 건너지 않는데 일정 금액을 상납해야 하는 모순적 상황에 있다.

지금까지 학과 학생회들은 회비를 더 많이 거둘 방법을 모색해 왔고 이런저런 방법들을 시도해 왔다. 회비 납부를 학회 가입과 연동시키거나 회비를 납부한 학생의 수만큼 학회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식이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단과대학 학생회가 재정적 부담을 학과 학생회에 떠넘기듯이 학과 학생회의 부담을 학회에 떠넘기는 것에 불과하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다.

현재와 같은 납부 방식을 바꾸기 어렵다면 상납 제도라도 바꿔야 한다. 상납금을 학과 정원을 기준으로 하는 대신 각 학과 학생회의 회비 수입 총액의 일정 비율로 바꾸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하더라도 단과대학 학생회의 예산이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줄더라도 예산 집행을 효율화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시험

기간의 간식 제공 같은 중복 사업을 단과대학 학생회가 하지 않거나 학과 학생회와 함께 진행하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학생회라는 학생자치기구가 대학에 필요하고 학생자치활동이 또한 대학 교육에 필요하다면, 자치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학생들이 스스로 부담하고 대학이 지원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학생회비 납부를 개인의 선택 사항으로 만들어 해마다 학과 학생회 임원들이 신입생의 회비 납부를 독려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그렇게 독려해 거둔 회비를 단과대학 학생회에 상납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학생자치를 위한 것인지의 문이다. 회비 수입이 적어서 자체 예산이 없는 총학생회가 대학 본부의 지원에 점점 더 많이 의존하게 되는 것이 과연 학생자치를 위한 일인지도 의문이다.

개강을 앞두고 각 단위의 학생회 임원들은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다. 그 가운데 하나는 학생회비에 대한 고민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어떻게 더 많이 거둘 것인지만 고민하지 말고, 무엇이 학생자치에 도움이 되는 방식인지도 고민해야 한다. 그것이 정말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한다면 말이다.

논설·평론-심사평

조대문화상 수필 부문과 논설·평론 부문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였다. 조대문화상 수필 부문과 논설·평론 부문에 응모한 글의 편수는 3편에 불과했다. 대 학생들의 세태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어서 수상과 상관없이 응모한 학생들에게 감사드린다. 응모부문별로 '수필' 부문은 김수경의 「그대에게 보내는 헛된 로망」과 박요한의 「그날, 눈 오는 태권도장 계단에서」, '논설·평론' 부문은 안용현의 「학생회비,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였다. 심사자는 수필과 논설·평론을 읽는 독자이자 심사자로서 평가 기준에 근거하여 엄정하게 평가하였다.

수필 부문의 김수경의 「그대에게 보내는 헛된 로망」은 모녀의 일상에서 시작하여 추억을 거쳐 지금의 상황으로 이어지는 구조에 '손편지'를 주고받는 정성과 감성에 대한 추억, 그리고 손편지를 기다리는 마음 등을 담았다. 짙은 글쓰기에 익숙한 세대의 문제를 추억을 통해 드러냈다. 화제 간의 긴밀성이 떨어지고 문맥의 흐름이 끊기는 부분이 많아서 읽기를 방해한 것이 아쉬웠다. 박요한의 「그날, 눈 오는 태권도장 계단에서」는 어린 시절의 태권도장에서 있었던 순간을 불러내 오래도록 가슴에 품고 살아왔던 마음을 풀어냈다. 태권도장 관장님의 배려와 사랑, 그리고 여전히 기억 속에 선명하게 자리한 태권

도장에 대한 추억의 되새김질은 분명 감동적이었다. 그런데 글의 완성도 면에서는 서툰 부분이 많았다. 두 편의 수필 모두 주제를 끝까지 밀고 나가는 힘의 부족했고 정서법에 어긋나는 문장이 많아서 읽는 데 불편했다.

다음으로 안용현의 논설 「학생회비,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는 학생회비에 대한 문제의식과 그 해법을 찾기를 시도한 글이다. 총학생회의 학생회비는 단과대학생회의 학생회비 상납으로 운영되고 단과대학생회의 학생회비는 학과 학생회비 상납으로 운영되는 총학생회비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단과대학생회와 학과학생회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것을 들춰냈다. 학생회비 상납의 구조적인 문제해결이 선행되어야 학과학생회와 단과대학생회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논리 구조는 설득력을 확보하고 있다. 다만 글의 도입 부분에 쓴 시점의 부정확성이라든가 낱말의 쓰임새를 잘못 쓴 ('걷다'로 써야 할 낱말을 '거두다'로 씀) 것이라든가, 논리를 흐리게 하는 불필요한 수사들은 옥의 티였다.

이상 3편의 글 중에서 안용현의 논설 「학생회비,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를 당선작으로 선정한다.

이동순 교수
(자유전공학부)

논설·평론-수상소감

「학생회비,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에서 내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학생회비의 이상한 구조로 인해 생겨나는 학생회의 고민이었고, 또 학내에서 학생회가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예전에는 학생회가 회비를 걷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었지만, 그 글을 작성하면서 다시 생각하게 됐다. 학생회가 회비를 걷는 것이 과연 학생회를 위한 것일까를 고민했는데, 생각이 좋게 흘러가지 않았다.

학생들과 불필요한 마찰이 생겨난다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 생겨나는 학생회의 이미지가 전부였다. 그러나 단합을 위한 행사, 학술을 위한 행사 등 학생들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행사는 학생회가 기획하고 진행한다.

만약 학내에서 학생회가 계속 필요하다면, 대학이 학생자치기구를 위한 방향으로 학생회가 변화하는 것에 도움을 주는 것이 어떨지 생각한다.

나의 이 생각들이 독자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지만, 적어도 이 수상으로 인해 그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된 것 같아 감사할 따름이다.

사실 그 글은 작년 학기 말에 있었던 학과 학생회와 교수님들과의 술자리에서 시작됐다. 작년에 고생했던 학생회

가 “상납금 때문에 생각보다 지출이 많으니, 학생회비를 잘 걷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새로 부임한 학생회에 조언해줬다. 그 주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눴었던 걸로 기억한다.

그 이후, 같이 이야기를 나눴던 교수님께서 조대문화상에 학생회비 상납구조를 주제로 출품해 보자고 제안했고 나는 써보겠다고 교수님께 대답하게 되면서 그 글이 쓰여졌다. 감사하게도 첨삭까지 도와줬던 교수님은 공진성 교수님이다. 교수님을 비롯해 취재를 도와줬던 내 지인들이 없었더라면 이 글은 완성될 수 없었을 것이다. 감사할 따름이다.

이 글과는 무관하지만, 교수님이 첨삭을 도와주면서 나에게 해줬던 말이 인상 깊어 소개한다.

“우리가 쓰는 이 글이 수상하지 않으면, 쓸모없는 일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쓸모없는 일을 하지 않으면 발전할 수는 없어”

안용현
(정치외교·3)



조대문화상 단편소설 부문 ‘당선작’

가을날, 어느 밤

오 선 종
(중국어문화·4)

별이 빛나던 가을밤이었다. 나에게는 어
느새 취미라고 할 것이 하나 생겼는데 바로
동네 언덕에 올라 밤하늘에서 반짝이는 별
들을 바라보는 일이다. 뭐 도시의 별이라 할
것들이 반짝이면 얼마나 반짝이기가 하기에
그런 취미를 즐기나 싶겠지만, 별을 본다는
것은 곧 길을 찾는 것 아닐지 하는 내 오랜
생각이 나를 이 자리에 이끌지 않았나 싶다.
옛날 사람들은 밤에 별을 통해서 길을 찾았
다는 소리가 또 내게 너무 낭만적으로 들려
왔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말이다. 그렇게
동네 언덕 정자에 앉아서 멍하니 하늘을 올
려다보고 있는데 독한 담배 냄새가 내 코를
찔러왔다. 담배 냄새에 주위를 두리번거리
니 정자 반대편에 앉은 어느 여자가 담배를
태우는 중이었다. 나의 그런 취미 활동을 방
해한 그녀에게 화가나 그녀 앞에 서서 이야
기했다.

“뭐 하시는 겁니까? 여기 엄연히 금연 구
역입니다.”

나의 그런 소리가 들리지도 않았는지 그
녀는 그저 하늘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
여자의 무시가 화가 나선 지 나는 그녀의 눈
앞에 손을 가져다 댔다. 그러자 그녀가 놀라
말했다.

“깜짝이야!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녀의 그런 반응에 나는 헛웃음이 나왔
다. 이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는 담배가
들려있는 그녀의 오른손을 가리켰다. 지금
일어나는 일이 대체 무슨 일인가 하던 그녀
는 내 손을 따라 시선을 자기 오른손 쪽으로
옮겼다. 자기 손에 들려있는 담배를 한동안
들여다보던 그녀는 자기 손에 담배가 들려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는지 당황하듯이 말했
다.

“어머 죄송해요. 담배 무슨 것이 습관이
되어서요.”

여자는 자기 가방을 뒤져가며 휴대용 재
떨이로 보이는 물건을 꺼내 담뱃불을 꺼트
렸다. 담뱃불을 꺼트린 것을 확인하고 뒤돌
아 다시 내가 앉아 있던 쪽으로 돌아가려 했
는데 그녀가 혼잣말로 주절거렸다.

“별들은 참 알뜰게도 빛나네요.”

내가 사랑하는 별들이 알뜰다는 그 소리
가 뭔가 참을 수가 없었다. 나는 주절거리며
말했다.

“별들만큼 아름답게 빛나는 것은 또 없을
겁니다.”

나의 그런 혼잣말에 그녀는 크게 웃었다.

“들렸나 봐요? 미안해요. 그냥 혼자 주절
거렸던 건데, 이 밤에 여기까지 오신 거 보
면 그쪽은 별 보시는 거를 참 좋아하시나 봐



요.”

나는 가던 몸을 돌려 다시 그녀를 제대로
바라봤다. 자세히 보니 앉아 있던 그녀의 표
정은 웃는 듯 보였지만 그 눈 안에는 분명
슬픔이 가득해 보였다. 그 눈을 바라보고 있
자니 여러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녀의 질문
에 답했다.

“네, 뭐 좋아합니다. 별을 멍하니 보고 있
으면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그런가요? 별을 보면 마음이 편해진 다
라 이해할 수 없네요.”

나의 대답을 들은 그녀는 꾹꾹하게 들고
있던 고개를 떨구었다. 무언가 사연이 있어
보이는 듯한 그녀에게 나는 물었다.

“이 밤에 굳이 여기까지 올라와서 별을 보
시는 거면 그쪽도 별 보시는 것을 좋아하시
는 거 아니가요?”

그녀는 다시 그 슬픔에 젖은 듯한 눈으로
하늘을 올려다보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나
지막히 이야기했다.

“아뇨,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대체 무
슨 생각으로 이런 데 올라와서 멍하니 별을
바라만 봤는지”

나는 옆에 앉아 그런 여자에게 물었다.

“그러면 혹시 이번이 처음인가요?”

그녀는 나의 질문에 그녀는 고개를 가우
똥거렸다.

“처음이라뇨? 뭐가 처음인가요?”

“별 보는 거 말입니다. 살면서 처음 보시
냐고요.”

“그런 것도 처음이라 할 게 있나요? 아무
것도 모르는 어릴 때 멍하니 쳐다보곤 했겠
죠.”

“어느새 사람들은 하늘을 보는 방법을 잊
곤 해요.”

그녀는 나의 그런 대답을 비웃었다.

“시인이라도 되시나 봐요? 오글거리네요.
별을 보는데 무슨 자격 같은 거라도 필요하
나요?”

“별을 보는 데에는 자격은 필요 없겠지만,
별을 보는 방법은 분명히 있죠. 별을 보는
것도 보는 방법 나름입니다.”

나는 밤하늘의 별을 가리켰다.

“일단 저기 보이는 별들이 가을 별을 보는
데에 가장 중요한 천마 자리입니다. 폐가수
스자리라고도 하죠. 그리고 천마 자리 가운
데 있는 것이 ‘가을의 대사각형’으로 이를 통
해 다른 가을 별자리를 찾아볼 수 있죠. 그
리고 저기 있는 별들이 안드로메다자리로
안드로메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나는 한동안 별자리의 이야기를 이어 나
갔다. 아무런 말도 없이 한동안 내 말을 듣
고 있던 그녀가 말을 끊었다.

“잠깐만요.”

그제야 내가 혼자 신나서 몇십 분은 넘게
떠들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죄송해요. 혼자 너무 신났었네요. 별 이
야기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떠
들게 되네요. 듣기 지루하셨겠죠?”

나의 사과를 들은 그녀는 어색하게 웃어

보였다.

“아니요. 재밌게 잘 들었어요. 그런데 슬
슬 가 봐야 해서 말이에요. 그나저나 별에 대
해서 정말 잘 아시던데 혹시 천문학자? 뭐
그런 거 하시는 분이신가 봐요?”

답변하기를 잠시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니
그 모습에 그녀는 적잖이 당황한 듯했다. 이
어지는 그 침묵이 너무 부담스러웠던 나는
그녀의 질문에 답했다.

“아뇨, 그저 작가 지망생입니다. 그냥 별
보는 것이 좋다 보니 저도 모르게 그런 것들
이 외워지더군요.”

나의 그런 대답을 들은 그녀는 어찌할 줄
몰라 했다.

“아, 죄송해요. 괜히 아픈 구석을 건든 것
같아서요.”

글을 쓰는 것을 직업으로 하려고 한다는
것이 어떤 일인지는 동네 돌아다니는 다섯
살짜리 꼬마애도 알 일이라 그렇게 처음 겪
는 반응도 아니었다. 나는 아주 담담하게 답
했다.

“아픈 구석이라 할 게 뭐 있겠습니까?”

너무 담담하게 구는 나와는 반대로 그녀
는 더욱더 걱정 어린 목소리로 답했다.

“편한 길은 아니시잖아요. 빈곤하고 배고
프고 힘들고 예술가의 삶이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닐까, 해서요. 아, 이런 말도 실례일가
요?”

나는 애써 웃으며 답했다.

“아뇨, 괜찮습니다. 이번에 써보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제는 글 쓰는 것을 그만 포기하고 취업을 준비해야 할 것도 같아서 말이예요. 어쩌면 이 길은 제 길이 아니었던 거죠.”

분명 시작할 때만 생각해도 문학상이란 문학상은 다 휩쓰는 나의 모습을 생각했는데 현실은 매번 작품 하나도 마무리 짓지 못하던 나 자신에게 회의감이 들던 참이었다. 나의 그런 대답이 영 시원치 않게 들렸는지 여자는 주저하면서 내게 물었다.

“그래도 꿈이었던 거 같은데 그렇게 쉽게 포기해 버려도 되는 거예요?”

나는 멧쩍은 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었다,

“꿈이라, 글썄요. 지금의 저를 어떻게 보실지는 몰라도 저란 사람은 생각보다 막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저 글 쓰는 것이 좋았던 것 같은데, 이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쓸 작품 내용은 정하셨나요?”

나는 한번 한숨을 쉬고 그녀의 질문에 답했다.

“아뇨, 아직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생각을 정리하려고 오늘 여기 왔던 거거든요. 생각을 정리하기에 조용하고 운치 있는 것이 여기만 한 곳이 없어서요.”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떨구었다.

“이러나저러나 삶이라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기만 하네요.”

말을 끝낸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한 번 폈다. 나는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다.

“그쪽도 그렇다면 오늘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나의 질문을 들은 그녀는 또 한 번 어색하게 웃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매번 그렇게 웃으셔도 너무 슬픈 눈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녀는 나의 말을 듣더니 다시 한번 하늘을 쳐다보았다. 그러면서 그녀는 주절거렸다,

“있잖아요. 그거 알아요? 나는 참 나쁜 녀예요.”

“갑자기 그러시면 뭐라 답할지 모르겠네요.”

나의 당황스럽다는 그 대답에 그녀는 자기 양 뺨을 쳤다.

“아니예요. 제가 잠깐 미쳤었나 봐요. 뭐, 이야기 재밌게 잘 들었어요. 꼭 멋진 글을 쓰시길 빌게요.”

그녀는 가방을 챙기고 돌아섰다. 그만 자리를 뜨는 그녀를 나는 불러세웠다.

“그거 아세요? 나침반이라는 물건이 발명되기 전에 사람들은 별을 보고 길을 찾았다는 것ですよ.”

언덕을 내려가던 그녀는 그 소리를 듣고 뒤돌아 나를 바라봤다. 그리고 나에게 질문했다.

“그게 지금이랑 대체 무슨 상관이죠?”

“어쩌면 밤하늘 별을 본다는 것은 어두운 밤에서 길을 잃은 우리가 가진 자연스러운 본능 아닐까 해서요.”

나의 그런 대답에 그녀는 웃었다.

“길을 찾기 위해서 지금 내가 별을 바라봤다는 건가요?”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우리는 별로 길을



찾을 수 있으니 말이죠.”

그녀는 나를 한동안 바라보고는 다시 내 쪽으로 걸어나 정자에 앉았다.

“아마 지금까지 살면서 다른 누군가에게는 처음 털어놓는 거 같아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러십니까?”

여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말을 꺼냈다.

“사실 오늘 엄마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여기 온 거예요. 여기가 엄마 사시던 동네거든요.”

갑작스럽게 훅 치고 들어오는 그 소리에 나는 다시 물었다.

“그런데 왜 여기 계신 겁니까? 자리를 지키고 계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나의 그런 추궁에 여자는 깊이 고민하더니 말을 꺼냈다.

“도저히 돌아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건 대체 무슨 소립니까? 돌아갈 수가 없다니? 가족들과 사이가 안 좋으신 겁니까?”

그녀는 또 한 번의 깊은 한숨을 쉬고는 이야기했다.

“사실 제가 중학생 때 가출했거든요. 그 후로는 엄마와는 연락 한 번도 안 하고 지냈어요. 그날 이후로 저를 열심히 찾고 계셨다는 것을 동네 친구한테서 전해 들어서 그런지 생각날 때마다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열심히 찾으셨는데도 그러신 겁니까?”

“엄마 입에서 미안하다는 소리를 들으면 더 이상 내가 살 수 없을 것만 같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더 도망쳐 다녔어요.”

“그래도 어머니한테 말이에요.”

주절거리는 나의 말을 듣고 그녀는 희미하게 웃어 보였다.

“아마 그때도 이런 가을밤이었을 거예요. 별이 이렇게 알뜰하게 빛나던 가을밤이요.”

“그래서 아까 별이 알뜰하다고 이야기하신 건가요?”

“그래요. 나는 이렇게 힘들고 죽을 것만 같은데 저 별이라는 것들은 그냥 반짝이고만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의 갑작스럽기만 한 그런 판지에 그녀는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그렇지 않다면 뭐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별이요. 별이라는 것들은 하늘에서 그냥 반짝이고만 있지는 않다고요.”

그녀는 나의 그런 말이 어이없다는 듯이 되물었다.

“그러면 대체 저 별들은 밤하늘에서 어떻게 반짝이는 건데요?”

“별은 자신을 스스로 태워 가며 그 빛을 보인다고 해요. 자신을 태워 가면서도 자신을 완성하죠.”

나의 대답을 들은 그녀는 날이 돌아있듯이 말했다.

“따분한 소리네요. 그래서 너보다 내가 더 불행하니 같은 불행대결 같은 거 하지 말라는 소리인가요?”

날이 서 있는 그녀에게 나는 차근차근 말했다.

“누구에게나 그런 순간이 있겠죠. 길을 잃은 것만 같다고 느끼는 순간들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시 나아갈 길을 찾아 나가기 위한 여정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 순간들조차 우리는 나아갈 길들을 찾는 중일 수도 있다는 거죠.”

내 이야기를 들은 그녀는 잠시 깊이 생각하는 듯했다. 생각을 끝마친 듯한 그녀는 내게 물었다.

“좋은 말이에요. 그 말은 직접 생각하신 건가요?”

“반지의 제왕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문구 중 하나예요. 방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길을 잃은 것은 아니다. 라는 문구죠.”

“영화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런 대사도 나오나요? 재밌네요.”

“생각보다 명작이에요. 시간이 난다면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저 판타지 활극처럼 보일 수도 있으시겠지만, 작품의 군데군데 작가의 문장들이 우리의 삶을 아주 잘 고찰하고 있거든요.”

“기억하고 있을게요. 반지의 제왕”

그녀는 다시 하늘을 멍하니 바라봤다. 나는 그런 그녀에게 또 물었다.

“그때를 후회하시는 건가요?”

나의 그런 질문에 그녀는 답했다.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새끼가 알아도 얼마나 많이 알았겠어요. 그냥 순간에는 엄마라는 인간이 그렇게나 미웠나 보죠. 사실 지금 생각하면 별 것도 아니었을 텐데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어머니와 뭐 때문에 싸우시고 가출하신 건가요?”

다그치듯이 묻는 나를 바라보고 그녀는 빙그레 웃었다.

“무례한 소리를 이제는 아무렇지 않게도 하시네요?”

순간 아무 생각도 없이 선을 넘었다는 생각에 나는 그녀에게 사과했다.

“아, 죄송합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너무 궁금해서요.”

내 반응을 바라보던 그녀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터트렸다. 한동안 계속 웃던 그녀는 웃음을 진정하고 나서야 이야기를 이어 나갔다.

“아, 너무 웃어서 미안해요. 장난이었는데요. 이제는 뭐 때문에 그날 그렇게 싸웠던 건지 잘 기억도 안 나요. 그냥 그때의 내가 너무 미련하게만 느껴지기만 하죠.”

“아, 그런데 돌아가셨다는 소식은 어떻게 아신 겁니까?”

그녀는 자신의 휴대전화 꺼내 문자를 내게 보여줬다.

“재혼하신 분 아들이 어떻게 찾아낸 건지 몰라도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연락하셨더라고요. 그래도 친딸이시니 와야 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말이에요.”

나는 그녀에게 물었다.

“그래도 낱아주신 어머니이신데 안 찾아가 보셔도 되는 겁니까?”

그녀는 나의 그런 질문에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다. 나는 다시 말했다.

“아 죄송해요. 제가 또 아무 생각 없이 질문했네요.”

나의 말을 듣고 그녀는 기어가는 듯한 목소리로 내게 말했다.

“그래도 한번 다녀오긴 했어요.”

“그래도 다녀오셨다니 다행이네요! 그쪽 분들은 혹시 뭐라고 하시던가요?”

나의 질문에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입구에서 조의금만 내고 바로 나왔어요. 영정까지는 도저히 볼 자신이 없더군요.”

요.”

“그래도 양부모님도 아니고 친부모님이신데 한번은 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무슨 낯짝으로 제가 그래요. 십 년도 넘게 자기 부모를 버린 자식이 말이에요.”

그녀는 손을 부르르 떨어댔다. 나는 그런 그녀에게 말했다.

“그래도 보고 싶으셨던 거 아니었나요.”

나의 그 소리에 그녀는 당황해했다.

“네? 그게 대체 무슨 소린가요?”

“그래서 여기까지라도 오셨던 거 아닌가 해서요. 그 무엇보다도 한 번만이라도 다시 보고 싶으셨으니까요.”

그녀는 나의 대답을 듣고 웃었다. 그러면서 담뱃갑을 만지작거렸다.

“오늘 참 많이 웃기게 하시네요. 여기서는 당연히 피우면 안 되겠죠?”

나는 주위에 다른 사람이 없는지 두리번거렸다. 꽤 늦은 밤이라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저는 못 본 거로 해드리죠.”

내 대답을 들은 그녀는 바로 담배를 꺼내 피었다. 한 모금을 깊게 빨아들이고 연기를 내뿜은 그녀는 내게 말했다.

“지금 와서 이런 상황에 말하기는 뭐한 데 정말 죄송해요.”

“아뇨 죄송할 게 뭐 있겠습니까?”

“금연 구역에서 담배 피워서 별 보시는 거 방해해서요.”

그녀의 대답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괜찮습니다. 뭐 언제나 예외라는 건 있으니까요.”

“금연 구역에도 예외가 있나요?”

“제 준법정신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도 글 쓴다는 분이어서 그런지 말을 참 재밌게 하시긴 하네요”

그녀는 어이없어하면서도 계속 담배를 태웠다. 담배를 피우면서 격해져 있던 감정이 어느 정도 진정되어 보이는 그녀에게 나는 다시 물었다.

“그래서 이대로 그냥 돌아가실 겁니까?”

나의 질문을 들은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깊은 한숨에는 여러 가지의 뜻이 담겨 있는 듯만 했다. 그러면서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내게 답했다.

“이제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가 맞는 건지. 내가 거기에 눈치 없이 상주로 끼도 되는 건지 말이에요.”

“지금 못 간다면 다음번은 없지 않을까요?”

그녀는 나를 한동안 쳐다봤다.

“위로라고 생각하고 해주시는 건가요?”

“아마도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상담사를 직업으로 하지 않으신 게 다행인 거 같네요.”

정곡을 찌르는 듯한 그녀의 말에 나는 입을 다물었다. 그렇게 담배 연기만 이어지던 긴 침묵이 이어지고 나는 다시 말을 꺼냈다.

“미안해요. 위로라도 드리고 싶었는데 위로라는 거는 생각보다 참 어렵네요. 간단할 줄 알았는데요.”

그녀는 피우던 담배를 꺼트리고 이야기했다.

“괜찮아요.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었다면, 굳이 상담사들이 돈까지 받고 일하지는 않



았겠죠. 그래도 별 이야기들 재밌게 들긴 했어요. 그 길고 지루한 이야기들 덕분에 우울한 기분은 좀 나아진 거 같아요.”

그녀의 그런 이야기에 나는 신이 나서 말했다.

“아직 별 이야기하면 남은 것들이 많은데 말이죠. 물고기자리도 있고 물병자리도 있으니, 말이에요.”

나의 그런 태도에 그녀는 딱 잘라 말했다.

“괜찮아요. 그거까지 다 들으면 아마 낯설 거 같아서요. 그리고 그래도 그쪽과 별을 보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가야만 할 곳은 찾은 것 같아서요.”

“가야만 할 곳은 찾았다는 것은?”

그녀는 나의 말을 긍정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뭐 아마 그쪽 생각이 맞을 거예요. 제게 별을 바라보는 방법을 가르쳐줘서 고마워요.”

“가르쳐준 게 아니라 떠올리게 만든 거겠죠. 우리는 원래 누구나 별을 볼 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가요? 아무튼 고마웠어요.”

“다행이네요. 그래도 제가 도움이 되었다는 게”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주위를 한번 정리한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 내용으로 소설이라도 하나 써보시는 게 어때요?”

“이걸로요? 이야기가 나와봤자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여자는 웃으며 말했다.

“저희 나름 많은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쪽이 신나서 이야기한 별자리 이야기만 해도 아마 책 한 권은 나올 거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마지막 작품 아직 못 정하셨다면서요. 이렇게 당신도 길을 찾아갈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가장 중요한 건 그쪽 이야기를 그렇게 막 가져다 써도 되는 겁니까?”

“뭐 다 쓰시고 가장 먼저 읽게 해준다면 상관없어요. 그리고 만약의 검수도 해야 하니 말이죠.”

“검수라고 한다면?”

“여기서 우리 둘이 못 할 말 참 많이 했

는데 그거까지 다 적으시면 혹여나 유명해지실 때 주인공이 될 제가 너무 곤란하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연락처가?”

그녀에게 나는 휴대전화를 건넸다. 그녀는 번호를 찍고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그게 제 번호예요.”

“실례가 안 된다면 성함이 어떻게 되실까요?”

내 질문을 들은 그녀는 무엇인가 깨달았는지 어이없다는 듯이 웃었다.

“저희 이렇게 오래 떠들었는데도 서로 통성명도 안 하고 있었네요.”

이제야 그 사실을 깨달은 나도 어이가 없어 웃었다.

“그러네요. 그러면 그쪽 이름을 뭐라고 저장해 둘까요?”

“별이라고 저장해 두세요. 오늘을 기념해서요. 실명을 알려드리기에는 부끄럽네요.

그러면 그쪽 이름은?”

“박종수입니다.”

“그쪽은 실명인가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뭐 나중에 유명해지면 알지 않겠습니까?”

“이야기 저작권료라도 때 받을 수 있길 빌어야겠네요.”

“이 이야기로 유명해진다면 뭐 기꺼이 떼어 드리죠.”

뚝! 하는 끊기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내게 휴대전화를 내밀어 보였다.

“이미 녹음했으니 약속 꼭 지켜셔야 해요.”

녹음기가 끊긴다는 소리라는 것을 깨닫고 어이가 없어 웃었다.

“철두철미하시네요. 당연히 드려야죠. 이 이야기의 공동 원작자라고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녀는 처음 봤을 때와는 다르게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가출하고 살았으면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해요. 사방이 적이거든요. 그러면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봐요. 다시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언젠가 뭐 다시 볼 수 있겠죠.”

“아! 그리고 죄송하지만, 저 남자 친구 있어요. 그러니 괜한 기대 같은 거는 하지 마세요. 제 스타일은 아니시거든요.”

“관심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녀는 질린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렇게 말하니 너무 오글거리네요.”

“지금까지 저희가 나눈 대화는 안 그런지 아세요?”

나의 대답을 듣자 그녀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전과는 다르게 부드러운 미소였다.

“그것도 그렇네요.”

그녀는 그렇게 언덕 아래로 내려가면서 사라졌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서 별을 조금 더 즐기고 집으로 향했다. 나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컴퓨터를 켰다. 첫 문장을 한동안 고민하던 나는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별빛들을 보고 첫 문장을 적어나갔다.

‘별이 빛나던 가을밤이었다.’

다음 문장을 고민하던 차에 휴대전화가 울렸다. 그녀에게서 전화가 온 것이었다.

“여보세요? 아, 원고 쓰고 계시던 참이었을까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그녀의 목소리는 더욱 가깝게만 느껴졌다.

“이제 집에 들어와 한 문장을 쓰던 참이었습니까.”

“그런가요? 그럼 혹시 쓴 첫 문장 말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나는 머뭇거리면서 처음 쓴 문장을 읽었다.

“별이 빛나던 가을밤이었다.예요”

나의 대답을 들은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뭐, 낭만적으로 들리긴 하네요. 작가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말이 거짓말은 아니셨나 봐요.”

“갈 때까지도 안 믿으셨던 겁니까?”

“솔직하기 이야기해 드려요? 제 말 듣고 상처 안 받으실 자신 있으시죠?”

“뭐, 동네 돌아다니는 미친놈이라도 되는 줄 아셨습니까?”

그녀는 웃었다.

“자기비하적이네요. 별을 보고 자존감을 키워보시는 거 어떨까요?”

그녀의 그런 말에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

왔다.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오히려 비밀로 해야겠네요. 듣고 상처받으실 거 같아서요.”
그녀는 능청스럽게도 말했다. 그런 그녀에게 나는 물었다.
“그나저나 찾아가시킨 한 겁니까?”
“네, 문 앞에서 들어가기 힘들었는데 아들이 입구에서 멈춰 서 있는 것이 이상해 보이기만 했는지,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방금

엄마도 보고 온 길이에요.”
“속은 시원하세요?”
“시원하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또 보고 나니 막막하기만 했던 것 있죠. 딸을 생각하면서 쓴 유품이라고 엄마의 일기도 받았어요.”
“어머니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희 엄마도 별을 참 사랑하셨더라고요. 제가 생각나는 밤이면 밖에 나와서 별을 봤다고 일기에 써두셨거든요.”

“별을 사랑할 줄 아는 건 유전인가 보네요.”
나의 시답지도 않은 농담에 피식 웃은 그녀는 내게 말했다.
“이것들도 아마 길을 찾아 나가는 과정들 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또 말하는 거지만, 정말 고마웠어요. 내게 별을 바라보는 방법을 떠올리게 해주셔서 아마 그쪽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엄마에게

다시 가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아무렴요.”
“이만 끊을게요. 꼭 멋진 작품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격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은 나는 그다음에 올 문장들을 적어나갔다. 가을날, 어느 밤 별들과 함께한 우리의 이야기를 말이다.

단편소설-심사평

단편소설은 일상 또는 삶의 파편을 통해 삶의 깊은 본질에 다가가려 하는, 장르의 운명이라고도 할 이 불가능해 보이는 시도가 진지하게 추구될 때 가장 빛난다. 삶의 표피 또는 단면을 통해 삶의 가장 깊은 곳에 접근하려는 시도가 불가능해 보이는 이유는, 그 성취가 어렵기 때문만이 아니라, 소설이라는 장르의 경계를 넘어서려는 노력을 포함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단편소설은 ‘시적인 것’을 발견하거나 ‘극적인(dramatic) 순간’을 포착하면서도 시나 극으로 환원되지 않을 때 성립되는 장르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단편소설이란, 장르의 한계를 넘어서려 할 때 장르의 본질에 다가갈 수 있는 아이러니적 장르가 아닐까.

이번 2023 조대문화상 단편소설 부문에 응모한 작품들을 읽으며, 이같은 단편소설 장르의 본질을 새삼 되새기게 되었다. 응모작들 대부분이 시적인 것 또는 극적인 순간의 포착을 통해 삶의 뜻깊은 국면에 다가가려 시도했기 때문

이다. 그 중에서 당선작으로 오선종의 「가을날, 어느 밤」을 뽑았다.

가을밤 별을 바라보다 낯선 이와 말을 섞고 뜻하지 않게 깊은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를 주고받게 된다는, 다소 상투적일 수 있는 설정임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엮어가는 능력에서 이야기꾼으로서의 소질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위로’의 힘이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고, 건조해 보이는 대화의 저변에서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 이 지점에서 「가을날, 어느 밤」은 극적인(dramatic) 특성을 지니는데, 두 인물이 주고받는 말과 말 사이의 틈으로, 부단스럽게 많은 온기와 함께, 잠깐 삶이 반짝인다.

아울러 이야기 내부의 사건을 메타소설적으로 순환하게 만드는 기법도 눈에 띈다. 꾸준히 글쓰기와 생각하기에 정진하기를 바란다.

차승기 교수
(국어국문학부)

단편소설-수상소감

글을 쓰는 것을 취미로 둔 이후로 처음으로 글을 쓰면서 받게 되는 상이라는 점에서 저에게는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취미로 시작했던 글쓰기가 이제는 제 글을 읽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다는 정말로 뜻깊은 경험이니 말입니다.

이번에 당선작으로 선정된 「가을날, 어느 밤」은 여러 공모전에 도전해왔지만, 실패한 저 자신에 대해 돌아보면서 쓰게 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써왔던 이야기들과는 다르게 무엇보다도 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쓰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이야기를 써오면서 저에게 문학은 그저 높은 벽이었습니 다. 고풍스러우면서도 그 안에는 분명 깊은 의미가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하곤 했으니 말입니다. 그런 쓸데없는 허례허식과도 같은 생각들이 저의 글쓰기를 좀먹고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여러 고민을 하던 중에 우연

히도 접하게 된 반지의 제왕에 스쳐 지나가듯이 나오는 ‘방랑자라고 해서 모두 길을 잃은 것은 아니다’라는 그 문구에서 이번 이야기를 써보게 되었습니다. 방황하고 정처 없이 떠도는 우리, 그리고 그런 모든 순간이 길을 잃은 방랑자가 아닌 사실 우리가 나아갈 길을 찾아 나가기 위한 여정이라는 생각을 담아서 써보게 되었습니다. 막연해 보이기만 하던 미래로의 나아감으로부터 용기를 얻고자 하는 마음에 말입니다.

부족하기만 해 보이는 저의 글을 읽고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신 조대문화상 심사위원께 감사드리며 이번 기회를 발판 삼아서 앞으로도 더욱 멋진 작품들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선작 선정에 감사드립니다.

오선종
(중국어문화·4)

시-심사평

올해는 시부문 투고작의 수가 예년만 못하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시에 대한 인식의 편차가 크기 때문 아닐까 생각된다.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배우는 시의 모델은 대부분 고전에 가까운 것이라 현대적이라 하기 어렵다.

현 시대를 관통하는 새로운 감수성을 담기에는 그릇이 낡아 보인다는 것이다.

투고작 중에는 고전적 모델을 추종하는 것들이 있는데, 대개는 그 모델의 수준을 한참 밑도는 경우에 속한다. 8090이 즐겨들던 노랫말이나 옛날 영화의 대사를 보는 듯한 느낌이다.

그런 분들은 요즘 유행하는 아이들의 노래를 들어본다고 생각하고 최근 시인들의 시집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이와는 다르게 세련된 감수성을 선보이는 부류가 있다. 이들에서는 틀을 잡

고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에서 누적된 습작 시간의 피땀눈물이 확인된다.

특히 우위를 가늠하기 어려운 두 사람의 작품을 두고 오래 숙고하였고, 최종적으로 이신혜 학생의 「홀리데이」 외 3편을 당선작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이은빈 학생에 대해서는 아쉬운 마음을 전한다. 이신혜 학생은 개인적인 기억들의 틈으로 상상의 언어를 삼입하며 몽환적인 장면을 연출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읽은 사람들도 언어의 연쇄를 따라가다 보면 독특하고 이질적인 감성에 닿는 경험을 하게 된다.

다만 그 감성의 빛이 주로 우울에 근거한다는 것은 다채로운 색을 내는 데 장애가 될 우려가 있다. 그래도 향후 자가 치유와 성장의 가능성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앞날을 기대하며 축하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오문석 교수
(국어국문학부)

시-수상소감

유자청을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자를 세척해줍니다. 반으로 갈라줍니다. 씨를 제거한 뒤 얇게 채를 썰어줍니다. 용기 안에 유자와 설탕을 1:1 비율로 넣어줍니다. 빈 용기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반복합니다.

일본 어느 마을에서는 유자향이 귀신을 쫓아내준다고 합니다. 심지어 유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도 동짓날이 되면 문간에다 후링 대신 유자를 매달아두기도 한다는데요. 쫓겨난 귀신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방울 소리를 들으면 일단 따라가고 싶어집니다.

이것은 방금 막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시골에 자주 놀러 갔곤 했습니다. 골목마다 맹렬하게 열려

있는 유자나무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남의 집 대문 앞에서 유자를 따다가 모르는 할머니에게 혼났던 적도 있습니다. 바닥을 어지럽히던 유자 열매들.

즐거웠던 것도 같습니다. 즐거움에는 이유가 없고.

며칠간 밤을 지새웠을 때는, 마을을 정처없이 걸어다녔어요.

감기에 걸리면 입 안에 무언가를 넣어주던 서늘한 손이 떠오릅니다. 이따금 그게 알약일 때 삼키는 척하다가, 이내 뱉어버리곤 합니다.

나는 느닷없이 잘 지냅니다.

이신혜
(문예창작·3)



조대문화상 시 부문 ‘당선작’

홀리데이

후쿠오카에 가자
개구리 신사가 있대
나쁜 일도 좋은 일로 바뀔 거래

이건 네가 들려준 이야기

나는 개구리를 과학실에서 처음 봤다
해부용 가위는 반장이 들었다
팔다리가 핀셋으로 고정된 개구리는
깊은 잠에 든 것 같았고

나는 잠에서 깨어나면 제일 먼저
마른 옷을 개어두곤 했다
옷에 번진 농담은 쉽게 지워져도
피부에 생긴 농담은 쉽게 지워지지 않지

농담이 된 멍을 천천히 눌러보면서

후쿠오카에 가자
개구리 입 속을 통과하면
나쁜 일도 좋은 일로 바뀔 거래

입을 벌리면서 자고 있는 네게
이번에는 내가 말을 걸었다

공항에서 캐리어가 몇 번 뒤집어지겠지만
입국 심사관은 잠깐 멈춰보라고 하겠지만
빈 캐리어를 보고 그냥 가도 좋다는 말을 하겠지만

발걸음이 너무 가볍다는 생각이 들면
한 번은 내가 캐리어에 들어가고
한 번은 내가 캐리어에 들어가고

그렇게 서로를 지켜주면서

우리는 내일 이 동네를 떠나기로 했다

젠가

종이 울렸다
제철이 어긋난 옷들은 태우기로 했다

구석에서 구피를 꺼내 씹어 먹고 있는 사람은
나와 가장 가까웠던 사람

수명을 다한 구피는 붙어만 있대
수온을 낮추는 게 좋을 거래

몇 개의 지느러미가 천장을 긁고 지나가는지
세어보았다

몇 개의 블록을 빼내야
밖으로 나갈 수 있을까

신부님은 그런 언니에게 정신이 없다, 가리켰고
나는 그런 신부님의 만수무강을 돕기 위해
오래오래 병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죽으면 병도 못 들 테니까

하나의 손가락이 누군가를 가리킬 때
나머지 손가락은 자신을 가리키는 것처럼

한 그루의 나무에는 여러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나뭇가지
들이 있다

어떤 건 목도리를 매어주고 싶을 만큼 가여워보일 테고
어떤 건 부러뜨려보고 싶을 만큼 가벼워보일 테지

모두 한 그루의 나무에서 발생한 일이지만

우리의 피부가 아직 따듯하다는 것을 나만 알아서

내일 봐,

나는 언니에게 방부제를 먹이며
마침내 지루한 빛 속에서 부고를 들은 것만 같았다



이 신 혜
(문예창작·3)

카운트다운

잠자리 날개를 뜯었다

몇 번의 섬에서 물장구도 쳤다

숨 참는 내기를 하면 내가 늘 지곤 했다

가라앉은 머리가
떠오르는 머리가 될 때까지

물에 서 있던 친구들과 그림자를 말렸다
저마다 체중이 줄어 보였다

와본 적 없는 길을 와본 것처럼 걸었고

여름 안에는 묻혀 있는
것들의 냄새가 났다

여름 밖에선 밑동에 앉아 졸고 있는
친구들과
대화 없는 화해를
나눴던 것도 같은데

저기 봐,
길이 갈라지는 곳으로부터 고향이었다

저기 봐,
혼자를 마찰하면 숲이 되었다

굴러다니는 몬스터볼들

빛에 홀린 우리는 지도를 태우며 어느 장면 하나를 보았다

루머가 되어도 좋을 것 같았다

플러그

캠핑을 갔다
오두막을 발견했다
식지 않은 수프를 마셨다
마주 앉아 있었던 친구는 안색이 좋지 않아 보였다

장작 더 가지고 올게
굴러도 찍히지 않는 눈발이었다
나는 눈 좀 붙일 겸
식기를 정리하고
접이식 침대에 몸을 접었다

저절로
돌아갔다가 멈췄다
끓어올랐다가 잠잠해졌다
들렸다가 안 들렸다
그렇게 날이 밝아오는 동안
책을 읽으면서 기다릴까, 했다

페이지를 넘기자
창문에 새 한 마리가 부딪히기 시작했다
창문에 새 두 마리가 부딪히기 시작했다
창문에 새 세 마리가 부딪히기 시작했다

책 안의 일인지 책 밖의 일인지
친구에게도 물어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걸쇠를 풀고
한 발자국씩
걸었다가
넘어졌다가
털어내면
은사시 나무 그늘이
깎깎, 뒤따라왔다

가지마다 맑음 인형들
술래가 된 기분
유서처럼
입김이 섰다

